# 濟州島 傳統社會의 農業經營에 關한 硏究

## — 涯月邑을 中心으로 —

南 碩 珍

目 次

Ⅰ. 서론
Ⅱ. 土地利用과 農作法
Ⅲ. 農業 經營 形態와 規模
Ⅳ. 要約 및 結論

## Ⅰ. 서 론

### 1. 硏究의 目的

한 社會構造의 特徵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政治, 文化的인 上部構造와 더불어 그 下部構造인 經濟的 條件이 考慮되어야 한다.

근대 이전의 한국의 社會構造에 農業이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다. 農耕文化는 곧 民族文化의 要諦였기 때문에 傳統文化의 각 분야가 거의 모든 農耕文化와 連繫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傳統文化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農耕에 對한 이해가 先行되어야 한다.

특히 濟州道는 한국의 最南, 西端 北太平洋上에 위치한 孤島로서 本土와 멀리 떨어져있다는 地理的 特徵, 氣候, 土壤 등 自然的 條件이 特殊하여 地域農業이 特異하게 生成, 發展하여 왔다.

孤立性과 特殊한 自然的 條件에 起因하여 發生한 濟州 農業의 傳統的 모습도 轉換期를 맞이하고 있다. 즉 감귤을 비롯한 農産의 급속한 성장으로 商業農과 食糧 生産을 위한 自給的 農業이 共存하는 二元的 構造를 이루고 있다. 이 두개의 相異한 部門을 지닌 제주도 農業의 成長 과정에서 볼 때 一部轉換期에 있다고 할 수 있다.[1] 이러한 歷史的 轉換期에 傳統的 農業社會의 屬性이 本島의 변화 과정에 어떤 형태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때, 즉 傳統社會의 經濟的 諸條件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農業에 起因한 社會, 文化的 要因의 連結性이 考慮되어야 本島의 進步的 發展 方向이 摸索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 硏究는 空間的으로는 濟州의 傳統社會의 農業構造를 규명하여 이러한 農業構造가 어떠한 行爲 屬性을 형성시켰으며, 그 屬性은 社會, 文化的 特質 形成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규명하는 基礎 資料를 제공하고, 時間的으로는 歷史的 轉換期에 傳統 農業의 屬性이 本島의 轉換期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출발점을 제공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本島의 特性에 부합되는 發展 方向의 摸索에 寄與하고자 함에 目的이 있다

## 2. 硏究의 對象과 方法

本 硏究는 濟州道 北濟州郡 涯月邑을 대상으로 하는 地域 科學的 硏究 方法에 의하였다.

涯月邑은 필자에 의하여 1985年 一次의 예비조사를 거친 지역이다. 대부분

1) 姜志勇, "濟州道 地域 農業의 立地區分과 展開 方向에 관한 硏究", 碩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大學院, 1980, P. 97.

의 마을이 400년 以上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男性중심의 유교식 절차에 의해 거행되는 酺祭와 本鄕堂祭, 그리고 女性들만이 참여하는 무속 신앙인 堂이 공존하면서, 男性 중심의 유교식 제사는 마을 공동으로 거행하는 등 유교적 전통이 중시되는 풍토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현재는 25個里로 되어 있으나 과거에는 錦城과 郭支理. 新嚴과 重嚴, 그리고 舊嚴과 龍興里[2], 貴日과 東貴里, 上加와 下加里[3], 上貴와 古城里, 召吉과 長田里가 하나의 마을이었으며, 今德里는 고려 때부터 古城里와 깊은 연관이 있는 지역이다. 村落 형성과 변화 과정의 特徵으로는 현재는 村落이 없으나 과거에는 원동이나 공초전에 村落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애월리는 현재의 위치에서 남쪽으로 약 1㎞의 거리에 있는 '숙구미'라는 곳에 형성되었던 마을이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는 사실 등이 있다. 또한 本邑에서 가장 高地帶(標高 600m)의 村落인 화전부락[4]은 현재의 주민들 중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민들이 최근에 이주한 주민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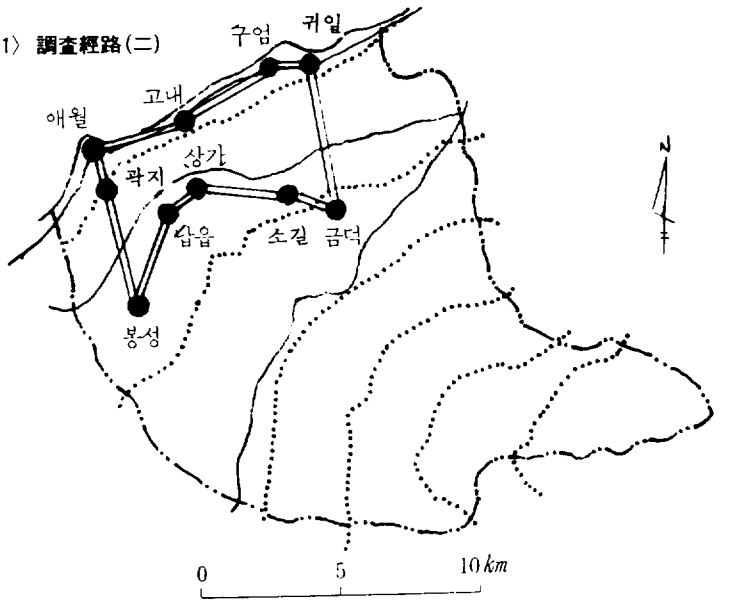
事前 調査에서 얻은 資料를 바탕으로 하여 本邑의 西部 地域의 마을중에는 標高 50m以下의 곽지리, 標高 50m 以上의 봉성리, 東部에서는 標高 50m以下의 귀일리, 50m以上의 소길리, 中間 地域에서는 標高 50m 以下의 고내리와 구엄리, 50m 以上의 납읍리와 상가리를 任意로 선정하였고, 애월리는 행정중심지이며, 옮겨온 마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금덕리는 화전 부락을 제외하고는 가장 高地帶의 마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전체적으로 標高 50m以上의 5개리, 標高 50m 以下의 5개리를 선정하여 집중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선정된 마을을 연결한 조사 경로는 〈그림1〉과 같다.

집중 조사 지역에서 면접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本 硏究가 傳統社會의 農耕을 對象으로 하였다는 特性을 考慮하여 자신의 경험은 물론 先代의 경험까지 이야기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① 他 地域에서

2) 속칭 '엄생이'라고 부르며, 용흥리는 1935년에 분리되었다.
3) 속칭 '더럭'이라고 함.
4) 속칭 '술또'라고 함.

〈그림 1〉 調査經路(二)




當代에 移住하지 않았으며, 거의 대부분의 生涯를 조사지역 內에서 보낸사람, ② 직접 農業에 종사한 사람, ③ 60세 이상인 사람 등의 條件에 의해 각 마을별로 1명씩 선정하였다. 면접조사는 각 가구 방문에 의한 非標準化面接(unstandardized interview)조사를 행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면접자들 중에는 地域 內에서는 물론 標高 200m以上의 地帶에서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즉 50m~250m사이에서 생활하였던 주민들이 200m以上의 高地帶에서의 農耕의 담당자였다. 이는 高地帶에서의 農耕에 對한 별도의 조사없이 그 地域의 農耕에 대한 硏究를 가능하게 하여 주었다.

그 외에 필자의 근무처가 本邑인 관계로 지역 주민들과 빈번히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관찰 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활동은 1987년 5월에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각 지역에서 재배되었던 작물의 종류와 각 지역별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공통

점과 相異點을 區分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6~7월은 작부체계, 田의 종류, 각 작물의 재배방법, 노동 동원 형태, 농업 경영의 규모 등으로 면접의 주제를 정하여 조사하고 8~9월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점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 3. 地域特性과 硏究範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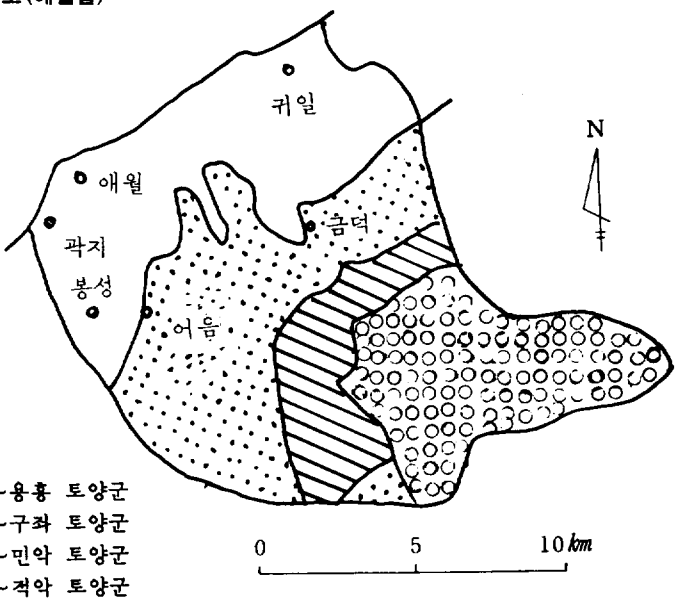
가. 地域特性

本 地域은 海岸에서 標高 600m에 이르기까지 400여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던 지역이다. 따라서 傳統 農耕의 모습을 수직적 혹은 시간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標高 50m以下의 9개리, 50m以上이 16개리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海岸의 영향을 받은 農耕과, 海岸의 영향을 받지 않은 농경의 特性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 本島의 行政, 文化의 중심지인 濟州市와 인접한 지역으로 외부 문화의 영향이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해안을 제외한 지역은 최근까지 교통 소통이 원만하지 못하는 등[5] 외부와의 교류가 원만하지 못한 데서 오는 상대적 孤立性이 保守的 住民性에 가미되어 傳統的 요소가 相當히 殘存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近代的 要素와 前近代的 要素가 중첩되어 있는 지역으로 傳統的 農耕과 轉換期의 特性의 고찰이 가능하다. 그리고 토양 개황도〈그림 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 토양군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지역으로 토양에 따른 농경의 특성을 규명함이 가능하다.

5) 중산간 도로의 포장이 현재 계속중에 있으며 본읍은 완성(1987년 초) 되었고, 서부 산업도로는 1986년에 개통되어 최근에 와서야 接近性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림 2〉 토양개황도(애월읍)




이와 같이 本 地域은 濟州道 傳統社會의 農耕을 고찰하기 위하여 필요한 自然的, 人文的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나. 硏究의 範圍

本 硏究에 있어서의 傳統社會의 農耕이라 함은 첫째, 人力과 畜力에 의한 農耕, 둘째 商業的 규모의 대량 생산 체계 이전의 자급을 위한 自給的 生産의 단계, 세째, 化學肥料가 생산 공급되기 이전, 즉 비료의 自給的 生産과 사용의 단계로 設定하여 考察하였다.

# Ⅱ. 土地利用과 農作法

## 1. 作付體系

가. 田의 種類

濟州道의 耕地는 대부분 旱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本 地域도 전체 耕地면적 4,904ha의 2.2%인 110ha만이 畓이며 97.8%인 4,794ha가 旱田으로 되어 있다.[6]

旱田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區分法에 따라 區分하고 그 특징을 考察하였다. 이러한 助田 區分法은 相當한 보편성을 띠고 있었으며 매우 오래된 관행으로 현재도 이 區分法을 쓰고 있다.

旱田의 종류에는 질왓[7], 작지왓[8], 마모른밭[9], 개흙밭[10], 뜬밭[11] 등이 있다. (표1 參照)

질왓과 작지왓의 차이는 대체로 토양중의 돌의 함량의 차이에 따르는 구분으로, 질왓은 습기 유지가 쉬워 乾害방지에 유리한 田으로 大麥의 재배에 유리하였고, 1일 소 한마리로 500~1000평의 耕地가 가능하였으며, 綠肥用인 大豆를 베어낸 후 耕地로 흙을 덮어 腐植시켜 地力의 회복을 꾀할 수 있었으나, 조(粟)의 재배시에는 滋害에 약하여 마가지[12]가 되지 않으면 제초 작업에 많은 人力이 소모되고 조(粟)의 발육이 저해되어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

6) 애월읍, 《1987년 애월읍 업무보고》, 애월읍, 1987.

7) '질다'즉 '습기가 많다'라는 말에서 온 田의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배수가 잘되면서도 습기유지가 잘 되는 田이다.

8) '작지'란 작은 돌을 의미하는 방언, 돌의 함량이 많은 田으로 '멀왓'이라고도 함. 일반적으로 中等田에 속하나 耕地가 곤란할 정도로돌이 많은 田을 '장멀왓' 혹은 '장맬왓'이라고 분류함.

9) '마'는 습기를 의미하며 '모른'은 '마른' 즉 건조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습기 유지가 안되는 건조한 田을 의미함.

10) '개흙'은 개(犬)의 흙, 즉 토질이 매우 나쁜 흙이라는 의미이다.

11) '뜬'은 '떠있다'는 의미로 토양이 가볍다, 혹은 토심이 얕다는 의미이다. 주로 標高 200m 이상의 地帶에 분포되어 있는 田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

12) 조 파종 후 발아때까지 비가 오지 않은 상태로 濕害를 입지 않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방언. 반면 발아 이전에 비가 내려 종자의 발아와 함께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조의 생육에 지장을 주게 되면 이러한 조를 '마마진조'라 한다.

반면에 마가지가 되었을 때는 어떤 田보다도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田이다.

〈表1〉 旱田의 種類와 特性

| 구분 田의 종류 | 토 양 특 성 | 장 · 단 점 | | 저력회복 방 법 | 주재배 작 물 | 토 지 등 급 |
|---|---|---|---|---|---|---|
| | | 장 점 | 단 점 | | | |
| 질 왓 | ○토양중 돌의 함량이 적다.<br>○비교적 습기가 많은 粘土이며, 배수가 잘된다. | ○乾害에 강하다.<br>○1일 耕犂면적이 넓다.<br>○綠肥(大豆)시비가 가능하다.<br>○곡식이 여물고, 濕害를 방지했을 때 수확량이 많다. | ○濕害에 약하다. | ○綠肥(大豆)시비<br>○휴한-夏 계절 휴한시 2~3회 耕犂 | 보리 (大麥) 조(粟) | 우등전 |
| 작지왓 (멀왓) | ○배수가 잘되는 粘土이며 토양중 돌의 함량이 많다. | ○濕害에 강하다. | ○乾害에 약하다.<br>○1일 耕犂면적이 좁다.<br>○綠肥(大豆)시비가 불가능하다. | ○휴한-夏 계절 휴한시 2~3회 耕犂-牛馬의 糞과 尿의 시비 | 조(粟) 보리 (大麥) | 중등전 |
| 마모른 밭 | | ○濕害에 강하다.<br>○1日 耕犂면적이 넓다. | ○乾害에 약하다.<br>○綠肥(大豆)시비가 불가능하다. | ○휴한-牛馬에 의한 鎭壓과 牛馬의 糞과 尿의 시비 | 보리 (大麥) 조(粟) | 중등전 |
| 개흙밭 | ○토양이 찰흙으로 구성된 重點土인 田 | | ○深耕이 불가능하여 작물재배에 적절치 못하. | ○휴한 | 산듸 (陸稻) 콩 (大豆) | 열등전 |
| 뜬 밭 | 未開墾地로 산성화된 토양 | | | ○휴한-이동농경 | 산듸 (陸稻) 메밀 (蕎麥) 조(粟) | 열등전 |

작지왓은 토양중의 돌의 함량이 많은 田이다. 따라서 乾害 방지에 어려움이 많아 大麥의 재배에 불리하였다. 반면에 조(粟)의 재배에는 滋害가 적어 마가지를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돌의 장애로 인해 1일 소 한마리의 耕犂 면적이 300~800평 정도였으며, 흙을 뒤집어 덮을 수 없어 綠肥(大豆)이용이 불가능하였다.

질왓과 작지왓은 여름 휴한시에는 2~3회[13] 耕犂를 하였다. 이는 ① 잡초의 驅除효과, ② 흙 덩어리가 깨어져서 작은 알맹이가 많이 만들어지는 효과, ③ 孔隙을 만드는 효과, ④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 有機物의 분해를 촉진하고 有效 成分量을 증가시키는 효과, ⑤병균이나 害蟲 등을 땅 속 깊이 묻거나 혹은 지표면에 내 놓아 日光에 쬐어 죽게 하는 효과 등을[14] 기대한 작업으로 보인다. 작지왓의 경우는 田에 牛馬를 넣어 牛馬의 糞이나 尿를 통한 시비의 효과를 기대한 경우도 있었다.

마모른밭은 토양이 가벼운 건조한 田으로 1일 耕犂의 면적은 질왓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넓은 편이었으며, 乾害에 약하여 大麥 재배에는 불리하나 滋害에 강하여 조(粟)의 재배에는 마가지를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田이다. 그러나 토양이 가벼워 綠肥(大豆)이용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휴한을 통한 지력 회복을 도모하였으며,휴한시에는 牛馬를 넣어 糞이나 尿를 통한 시비의 효과와 아울러 鎭壓에 의한 토양의 飛散을 방지하고 습기의 유지효과[15]를 기대하였다.

개흙밭은 '알바든밭'[16]이라고도 하여 흙이 단단히 굳어 돌맹이처럼 되어 있는 重粘土인 田으로 深耕이 불가능하여 해안 지역에는 여름 작물인 산듸(陸稻)와 콩(大豆)만을 재배하였으며, 高地帶에서는 비경작지인 경우가 많았다.

뜬밭은 標高 200m以上의 지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未開墾地를 이르는 田

13) 2회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6월과 8월에, 3회인 경우는 3월 혹은 4월에 1회, 그리고 6월과 8월에 耕犂를 함.

14) 吳旺根, 《土壤學》, 서울 富民文化社, 1964, p. 228.

15) 池泳鳳, 《栽培學 汎論》, 서울 鄕文社, 1969, p. 501.

16) '알바든'의 알은 '아래', 바든은 '받은'을 의미한다. 따라서 耕犂나 제초시에 흙이 단단하여 보지 저항이 크기 때문에 深耕이 안되고 제초가 힘이 들다는 의미로 '알 바든 밭'이라고 한다.

의 명칭으로, 산성화된 토양이며 토심이 얕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以上과 같이 질왓은 優等田, 잣지왓과 마모른밭은 中等田, 개흙밭과 뜬밭은 劣等田으로 區分되어 질 수 있다.

나. 田과 作物

주요 田作物로는 穀類로서 主穀인 大麥과 조(粟), 메밀(蕎麥), 산듸(陸稻), 피(稷), 수수 등이 있었으며, 豆類로는 大豆, 小豆, 녹두 등이 있었다. 그 외에 棉花, 참깨(胡麻), 들깨(油麻), 무우 등이 있었다. 大麥과 조(粟)는 우등전인 질왓, 중등전인 작지왓과 마모른밭 등 가장 광범위하게 재배되었고, 산듸(陸稻), 메밀, 피, 조[17]는 뜬밭에서 콩(大豆)은 질왓, 작지왓, 마모른밭에서, 팥(小豆)은 작지왓과 뜬밭에서 주로 재배되었다. 棉花는 우등적인 질왓중에서도 가장 우등적인 '마오롱한밭'[18]에서 재배하였고, 녹두, 참깨, 들깨, 수수등은 '머드리'작물[19]로서, 녹두, 참깨 등은 질왓, 작지왓, 마모른밭에서 머드리로, 들깨는 뜬밭에서 머드리로 재배되는 경우가 많았다. 무우도 머드리로 재배되기도 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뜬밭에서 메밀과 混作하기도 하였다.[20] 1930년대 이후 부터 대량 재배되기 시작한 고구마는 질왓, 자지왓, 마모른밭에서, 감자는 주로 뜬밭에서 재배되었다.

다. 作付體系

本 地域의 傳統的 作付體系는 一年二作式, 二年二作式, 二年三作式, 一年一作式 作付體系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7) 조의 품종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뜬밭에서는 '마시리', '모살시리', '흰덕시리'라고 부르는 조가 재배되었다. 메조에 속한 품종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차조도 뜬밭에서 재배되면 메조처럼 찰기가 없어졌다고 한다.

18) 질왓 중에서도 배수가 잘되며, 양지바른 우등지를 일컫는 말.

19) '머드리로 심는다'고 하면 間作, 混作, 혹은 田의 주변이나 모퉁이 등에서 작물을 재배한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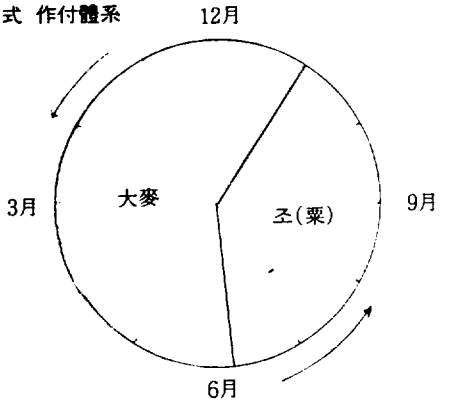
20) 무우는 田의 주변에서 주로 재배됨. 이 경우는 혼작의 특수한 사례로서 소길리에서 발견됨.

1)一年二作式 作付體系

이 作付體系의 대표적 유형은 〈그림 3〉과 같다.

이 體系는 田小者 혹은 小農, 그리고 農家에서 近距離에 있기 때문에 人尿와 바닷물의 혼합 비료를 追肥할 수 있고, 優等田이라는 條件에 의해 나타난다. 小農이 대부분인 標高 50m 以下의 지역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體系이다. 이 體系을 선택하였을 때는 어디에서나 人尿 혹은 人尿와 바닷물을 혼합한 肥

〈그림 3〉 一年二作式 作付體系




料를 최소 2회이상 追肥하였다. 이와 같이 이體系는 집중적인 시비없이 수확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으므로 食口가 6~7명일 겨우에 500여평 정도의 경작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追肥는 大麥에만 집중되였으며, 조(粟)는 大麥에의 시비효과가 연장되었다.[21]

2)二年三作式 作付體系

이 體系의 대표적 유형은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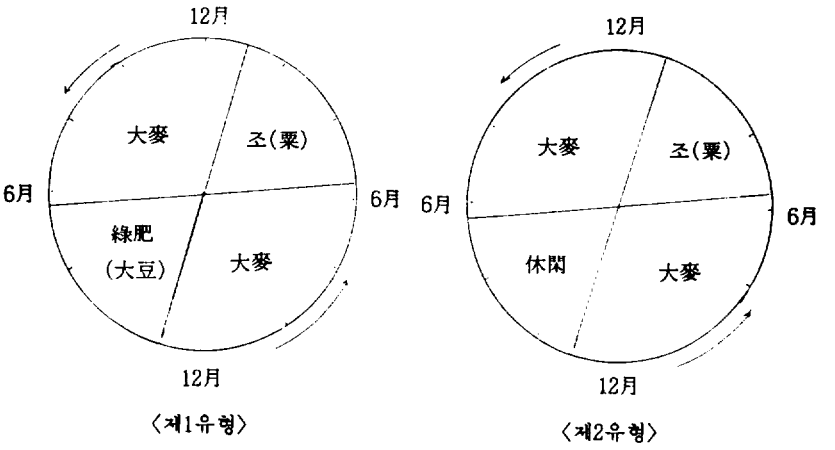
제1유형은 우등전인 질왓에서, 제2유형은 작지왓과 마모른밭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그 이유는 前述한 바와 같이 綠肥를 施肥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

21) 標高 50m 이하의 해안지역에서는 이체계에 의해 경작되는 田을 '도루'라고 한다. '도루갱이'라고 하면 극히 작은 면적의 田을 의미하는 방언이다. 따라서 人尿와 바닷물의 혼합 비료의 시비에 의한 大麥의 재배에는 한계가 있어 작은 규모의 우등지를 선택하여야 하였던 데서 오는 명칭으로 보인다.

라 나타나는 것이다. 질왓은 大豆를 8月에 베어낸 후 고랑에 깔아두었다가 9月에 耕耨하여 흙을 덮어 주었다. 綠肥를 시비하였을 때는 그 後作으로 大麥을 播種할 때 '찐거름'[22]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잇점이 있었으며, 1회 정도는 綠肥의 위치에 조(粟)을 재배할 수 있는 잇점이 있었다.

이 작부체계는 標高 50m 以下의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체계이며, 제1유형은 50m 以上의 질왓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4〉 二年三作式 作付體系




3)二年二作式 作付體系

이 體系의 대표적 유형은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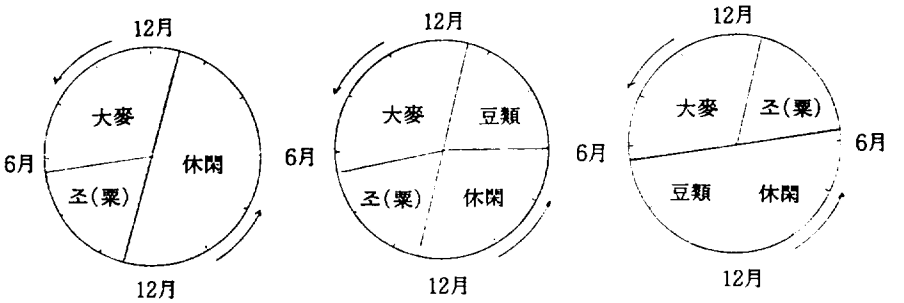
제1유형은 二年二作式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富農이 2個의 田을 교대하며 경작하였던 유형이다. 우등적인 질왓에서는 休閑期인 5月~11月 사이에 綠肥(大豆)를 施肥하거나, 二年三作式의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제2유형에서 질왓에는 滋害에 강한 점을 고려하여 大豆를, 작지왓과 마모른

22) 大麥의 種子와 돼지 우리에서 제조된 거름을 섞은 것으로 大麥의 播種에 사용한다. 상세한 내용은 후술.

밭에서는 乾害에 강한 점을 고려하여 小豆를 주로 재배하였다.[23]

〈그림5〉 二年二作式 作付體系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3유형은 滋害의 피해를 별로 받지 않아 조(粟) 재배에 유리하였기 때문에 작지왓과 마모른밭에서 주로 나타난다.

제1유형에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休閑期에 2~3회 耕犂를 하였으며 마모른 밭은 鎭壓을 하였다. (2)와 (3)의 유형에서는 '봄에 번한다'[24]고 하여 3月 혹은 4月에 1회의 耕犂를 하였다.

(1)과 (2)의 유형은 주곡인 大麥 중심의 작부체계이며, (3)의 유형은 조(粟) 중심의 작부체계이다. 따라서 (1)과 (2)의 유형에서는 休閑과 耕犂의 효과, 豆科 作物의 재배에 따른 토양중의 질소 증가의 효과, 그리고 퇸 거름을 사용한 大麥의 파종 등 모든 시비의 효과가 大麥에 집중되도록 되어있고, 조(粟)는 麥侯作으로 재배하면서 施肥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大麥에의 施肥 효과가 조(粟)에도 연장되었다.

---

23) '팥은 콩보다 토양 수분이 적어도 발아할 수 있지만, 과습에 대한 저항이 약하다. 흑은 비교적 가벼운 토양에 알맞다' 〈池泳鱗, 《田作》, 서울 鄕文社, 1969, p. 286.〉
'콩은 뿌리가 비교적 깊어서 건조한 토양에도 적응하지만 토양 수분이 넉넉한 것을 좋아하며' (上揭書, p. 257).
'콩은 양분, 수분이 많고 粘質인 토양이 채종지로서 알맞다' (李殷雄), 《食用作物學 各論》, 서울 富民文化社, 1970, p. 421.

24) '번한다'는 방언은 주로 休閑의 의미로 쓰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耕犂의 의미가 함축되기도 한다.

조(粟)를 중심으로 한 제3유형의 조(粟)를 '무게조' 혹은 '무기조'라 하고 이 유형으로 조(粟)를 재배함을 '무기 달룬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된 어원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겨울에 휴한한 田에서 재배되는, 즉 제3유형상의 조(粟)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였다.[25] (1)과 (2)의 유형에서의 조(粟)는 施肥가 없었던 반면 제3유형의 무게조는 파종과 동시에 灰가 施肥되었다.

本稿에서 (2)와 (3)의 유형을 二年三作이 아닌 二年二作式으로 分類한 이유는 豆類 재배의 주 목적이 토양중 질소 증가라는 地力 회복에 두었고, 식량의 확보는 보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大豆와 小豆는 수확량의 편차가 매우 심한 작물이었으며, 大豆의 種實이 적으면 綠肥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도 이를 입증하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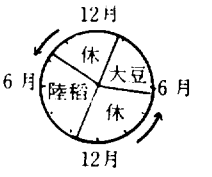
또한 '大麥→休閑→大麥→休閑'[26] 혹은 '休閑→粟→休閑→粟'[27]의 一年一作式 作付體系와도 구분하기 위하여 二年二作式으로 분류하였다.

二年二作式 作付體系는 本島의 주곡이 大麥과 조(粟), 특히 大麥임을 克明하게 보여주는 作付體系라 할수 있다.

4)一年一作式 作付體系

이 作付體系는 표고 200m 以上의 地帶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200~400m, 400~800m, 800m이상의 地帶에 따라 類型을 달리하고 있다.[28]

①標高 200~400m의 類型




25) '무기 달룬다'는 무게조를 재배한다는 의미이다. 무기 혹은 무레간 의미는 두가지로 해석하며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무거운 조, 즉 품질 좋은 조를 생산한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무개 차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앞이 열려있는, 즉 휴한한 다음 조를 재배한다는 의미로 추측하여 볼 수 있다.

26) 이 유형의 작부 체계는 발견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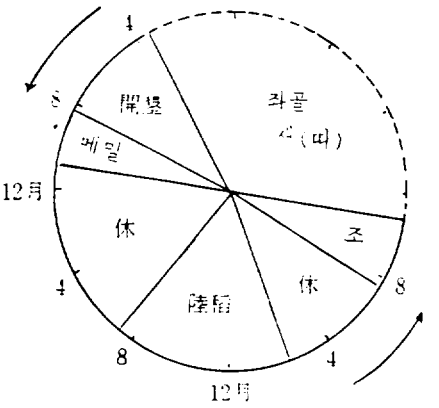
27) 이 유형은 標高 200m 以上의 지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後述하였음.

28) 1년1작식 작부체계로 標高 50m 이하의 개흙밭에서 옆 그림과 같은 유형이 있었으나, 전체 농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논외로 한다.

이 地帶는 標高 200m 以上의 地帶中에서 土深이 깊어 새(띠)가 自然的으로 자라는 토양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 지대에서는 새(띠)밭을 개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작물을 재배한 후 경작지를 이동하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돌아오는 循環式移動農耕을 하였다.

이 지대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유형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一年一作式 作付體系一 제1유형




'바디가 좋은 밭[29]은 메밀을 우선 재배하여 밭이 부드러워지면 산듸(陸稻)를 재배하여야 한다'고 하여 메밀(蕎麥)→陸稻→조(粟)[30]의 순으로 작물을 재배하였다. 즉 陸稻를 중심으로 한 作付體系였다. '바디가 나쁜 밭은 팥(小豆)을 먼저 재배하여 땅을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토질이 척박하였을 경우에는 제1유형에서 메밀을 재배하기 前年에 팥을 먼저 재배하였다. 이는 "초목이 번무하고 낙엽이 쌓여있는 토지는 비옥한 개간지이므로 처음부터 20~30cm 정도로 荒起고 반전도 완전히 하도록 한다. 그리고 2년째 가서는 15cm, 3년째 20cm라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深耕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단번에 심경하는

29) 돌의 함량이 적고, 지형이 평탄하여 흙 덩어리가 작은, 즉 흙이 부드러운 田을 의미함. 따라서 熟地化작업이 용이한 田.

30) 조(粟)가 아닌 피(稷), 팥(小豆), 혹은 조(粟)와 피(稷)의 혼작이 이루어지기도 함.

경우에 비하여 습윤, 건조의 반복이 많고 토양 미생물의 번식이 쉬우므로 숙지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31]" 그리고 "개척전은 대체로 산성 토양이므로 개척전의 개량은 산성토양의 개량법에 준하면 된다. 적응성 작물부터 시작하여 점차 토양 개량을 꾀한다."[32]라는 개간법에서와 같이 팥→메밀→산듸(陸稻)→조의 순서로의 재배는 적응성 작물부터 시작하여 토양 개량을 꾀한 것이었다. 또한 開墾後 메밀 파종 전에 2회의 耕耙를 하였다. 이는 뜬밭의 가벼운 토양 특성상 熟田의 休閑期의 耕耙에 의한 지력 회복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 아닌 개간지의 熟地化作業이었다.

제1유형의 작부체계에서 조(粟)의 재배가 끝나면 그 田에 "좌골[33]을 들이거나 새(띠)를 들인다. 좌골은 3년정도, 새(띠)는 10년정도 거두어 가면 가물어 간다. 그러면 또 다시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다"고 하여 좌골을 재배하였을 경우에는 3년, 새(띠)가 저절로 자라도록 방치하였을 경우는 10년 정도 지난 다음 이 유형의 작부 체계가 재 순환되었다. 좌골을 재배한 다음 再 開墾할 때에는 소 한마리로 개간이 가능하며[34], 짧은 기간의 休閑期를 거쳐 재경작할 수 있는 잇점이 있었다. 따라서 좌골의 재배는 비교적 비옥한 토지가 선정되었다. 제1유형의 작부체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開墾地이외의 自家의 주곡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 熟田을 소유하고 있을 것, 둘째, 耕耙에 필요한 畜力의 所有, 셋째, 人力의 여유등이다.

村落 內의 경작지가 전반적으로 척박하여 첫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地域의 小農에 의하여는 〈그림 7〉과 같은 제2유형이 선택된다.[35] 이 제2유형은 제

31) 학원사, 《農業大事典》, 서울 학원사, 1975, p.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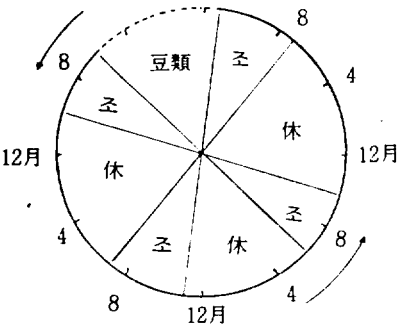
32) 池泳鱗, 《栽培學 汎論》, 서울 鄕文社, 1969, p. 181.

33) 차풀(Cassia nomame). 소의 사료로 이용된다.

34) 개간은 소 두마리를 사용한다. 상세한 내용은 後述하였음.

35) 일반적으로 표고 150m 이상의 지대에 위치한 촌락의 小農에 의해 제2유형이 나타난다. 사례로서 소길리의 경우 마을안의 田이 '물빌채기'여서 새밭농사를 많이 하였다고 하였으며, 금덕리의 경우는 개흙밭에서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새밭 농사를 지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더구나 금덕리는 표고 200m 이상에 위치한 촌락으로 농경에 매우 불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동농경에 참여하였다. '물빌채기'라 함은 물이 고이는, 즉 배수가 되지 않는 田을 의미한다.

〈그림7〉 一年一作式 作付體系-제2유형




1유형에서 좌골이 재배되는 정도의 비옥한 토지에서 나타난다. 제2유형이 주로 나타나는 지역의 주민들은 새(띠)밭을 '검은사락'과 '황사락'으로 구분하였다. '검은사락'이라 함은 黑色의 흙이라는 의미로, 이 흙은 벗(벽)에 붙는 성질이 있다고 하였다. 즉, '검은사락'은 토양 특성이 가벼운 뜬밭중에서 약간의 粘質이 있는 토양을 의미하였으며, 여기에 제2유형이 나타난다. '황사락'은 黃色의 흙으로, 이 경우는 제1유형의 陸稻의 위치에 조(粟)가 재배되고, 최종의 재배 작물인 조(粟)의 품종과 재배과정이 달라진다. 제1유형에서의 조(粟)는 '마시리'라고 불리우는 품종으로 耕耘侯 散播하여 선비[36]로 覆土하고 鎭壓이나 除草作業의 投入이 全無하며, 種實이 적을 경우는 탈곡을 하지않고 소의 사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반면에 '황사락'에서는 '모살시리', '멍덩시리'라고 불리우는 품종으로 鎭壓이나 除草作業이 投入되었으며, 소의 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었고, '마시리'보다는 찰기가 있는 품질 좋은 품종이었다.

이와 같이 陸稻 대신 조(粟)가 선택된 이유는 조(粟)가 수확량이 보다 많았을 뿐만 아니라 수확량의 격차가 적은 안정된 작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첫째 조건이 충족된 小農은 자급식량 이외의 경조사등에 특별 식량으로 주로 쓰이는 陸稻를 재배할 여유가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小農은 우선 자급식량의 확

36) 覆土農具,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였음.

보를 위하여 조(粟)를 재배하였다.

제2유형에 있어서는 우선 팥이나 메밀을 재배함이 없이 조(粟)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력이 소모되면, 조(粟)에 灰가 시비되었다. 그리고 이 조(粟)單作型인 제2유형은 3~4년 정도 조(粟)를 재배한 다음 大豆나 小豆를 재배한다. 이때 파종하고 제초나 시비등이 없이 방치하였다가 풀(草)틈에서 수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3~4년 豆類를 재배한 후 또 다시 제2유형이 재순환되었다.

둘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타인의 소를 借用하여 개간하였을 경우는 그 댓가로 메밀과 陸稻를 재배한 후 '마시리'의 경작권을 넘겨주었다. 새(띠)밭 등의 개간 耕墾에는 두마리의 소가 이용되었으며, 소 두마리를 借用한 예는 찾아 볼 수 없었다.[37] 제2유형이 나타나는 地域에서는 수눌음에 의해 부족한 畜力을 보충하였다.[38]

셋째 조건은 첫째와 둘째 조건과 연관된 것으로서 自給에 필요한 熟田을 소유하지 못하고, 또한 소를 소유할 경제적 여력도 없는 주민은 삯노동을 제공받을 富農이 존재하는 村落에서는 삯노동의 제공으로 생활하였다. 따라서 人力의 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에 삯노동의 제공처가 존재하지 않는 村落의 주민들은 標高 800m 이상의 지대에서 人力만을 이용하는 農耕에 의존하며 생활하였다.

② 標高 400~800m의 類型

이 地帶는 雜草, 灌木 등이 널려 있어 放牧에 이용되는 지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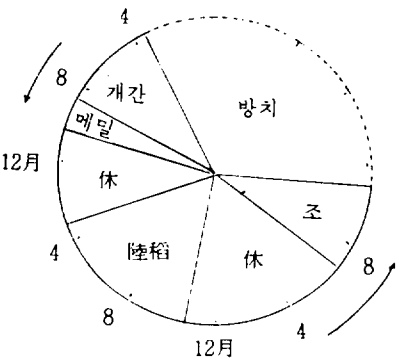
---

37) '새밭'을 개간하기 위한 소는 借用이 어려웠다. 개간을 위한 耕墾는 많은 힘이 소모되는 작업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소를 빌려주고 마시리의 경작권을 얻으려고 하는 주민들은 많이 있었으나 이러한 댓가를 지불하여 소를 대여하려는 주민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소를 借用하여 개간을 하는 예는 극소수였다.

38) 금덕과 소길 등은 마을 토지의 척박성과 주민들의 대부분이 自作小農, 즉 富農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다. 전자에 의하여는 제2유형이, 후자에 의하여는 수눌음이 일찍 발달한 지역이다. 이와 같이 토지 소유의 균등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村落에서 小農사이의 畜力의 교환이라는 사례는 발견되는 예가 드물었다. 즉 畜力 교환이라는 수눌음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지대에 있어서는 제1유형이 성립하는 조건이 충족된 小農에 의하여는 〈그림 8〉과 같은 유형이 나타난다. 그러나 첫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특히 이 지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 의하여는 陸稻는 재배되지 않고 그 대체 작물로 조(粟, 마시리), 피(稷), 혹은 팥(小豆)등이 재배된다.[39] 이 지대에 있어서는 제3유형의 작부체계가 종료되면 경작지를 방치하고 이동하는 농경방식을 취하였다. 標高 200~400m지대의 농경을 주민들이 '새밭 농사'라 부르는 반면 이 지대에서의 농경을 '목장밭 농사'라고 불렀다.

〈그림8〉 一年一作式 作付體系-제3유형




③ 標高 800m 이상의 類型

이 지대는 喬木이 자라는 山林으로 겨울에 나무 위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잘라낸 다음 봄이 되면 이 나뭇가지를 태워 시비하고 조(粟, 마시리), 팥(小豆), 피(稷) 등을 재배하였다. 이 지대에서의 농경은 人力農具, 즉 나대[40], 따비, 호미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 지대의 농경은 제2유형이 다수 나타나는 지역의 주민들 가운데 제1유형의 3가지 성립 요인중에서 첫째, 둘째 요인이 결핍되고 셋째의 요건만을 갖추

39) 화전부락(標高550~500m), 공초전(標高620~630m), 원동(標高400~420m), 현재는 화전부락에만 주민들이 살고 있다.

40) 日語 사전에 'なた'(사)라는 농구를 일종의 손도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농구로 추정된다. 그 형태는 그림과 같다.

고 있는 농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민들은 이 지대에서의 농경을 '친밭 농사'[41] 라 불렀다.

④ 小 結

제1유형의 作付體系는 전술한 바와 같이 自給耕地의 小規模性, 畜力(牛)의 所有, 人力의 3가지 요인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하였다.

(1)과 (3)의 유형은 세요인의 충족에 의해 나타나며, 이 유형에 있어서 畜力의 부족은 借用에 의해 보충된다. 제2유형은 自給耕地의 척박성 혹은 狹小할 때 나타나며, 畜力의 부족은 수눌음이라는 畜力 교환에 의해 보충된다.

자급경지와 畜力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는 삯노동에 의해 생활하고, 삯노동을 필요로 하는 富農이 없는 지역에서는 친밭 농사에 의해 생활하였다.

一年一作의 作付體系를 취하는 地帶에서는 주로 마을 경작지의 척박성, 小農이 대부분인 富의 균등성과 제2유형, 친밭농사, 그리고 수눌음에 의한 畜力 교환이 연결되며, 富農, 小農, 田少者 혹은 無田民이 존재하는 계층성과 제1유형, 제3유형, 畜力의 借用, 삯노동이 연결된다.

## 2. 栽培作物과 農法

가. 作物의 種類

주 작물로는 標高 200m 以下의 지역에서 재배된 大麥, 조(粟), 棉花, 콩(大豆), 標高 200m 以上에서 재배된 조(粟), 陸稻, 메밀(蕎麥), 피(稷), 모든 지역에서 재배된 팥(小豆) 등이 있었다.

그 외에 고추, 참깨(胡麻), 녹두, 들깨(油麻), 수수, 무우, 배추 등의 작물이 間作 혹은 混作의 형태로 재배되었다. 주민들은 間作, 混作 혹은 田의 주변이나 모퉁이 등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머드리로 심는다'고 하였다. 混作으로는 고추, 참깨(胡麻)가 棉花와 팥(小豆), 綠豆, 고추가 콩(大豆)과, 綠

41) '친밭'의 '친'은 쳐내었다. 즉 잘라내었다는 뜻으로 나뭇가지를 잘라내어 농사를 짓는 밭이라는 의미이다.

豆, 팥(小豆)이 조(粟)와, 들깨(油麻), 綠豆, 팥(小豆), 참깨(胡麻)가 陸稻와 재배되었다. 특수한 사례로서 무우가 메밀(蕎麥)과 混作된 지역도 존재하였다. 間作物로는 수수가 콩(大豆) 혹은 조(粟)와 間作되었다. 팥(小豆), 綠豆, 고추, 들깨(油麻), 배추, 수수, 돔비[42] 등은 夏 作物을 재배하는 田의 주변 등 빈공간에서 재배되기도 하였다. 머드리로 심는 작물들이 主作物의 生育에 장애가 될 때에는 제거되었다.

각 農家의 울타리 內의 공간에서도 작물들이 재배되었다. 새우리[43], 양에[44] 등은 '지실물 내리는 곳'이라고 하여 초가 지붕의 물이 흘러 내리는 습기가 비교적 많은 곳에, 호박이나 박은 보리짚을 쌓아 둔 눌[45]이나 지붕에 줄기를 올렸으며, 강낭콩은 울담에, 그리고 마늘, 무우, 패마농[46] 물외[47], 배추, 고추, 수수, 어주에[48] 등은 '우잣'[49]에서 재배하였다. 또한 귤나무[50] 감나무 등도 재배되었으며, 대(竹)는 농가의 뒷뜰에 방풍이나 用具제작을 위하여 재배하였다.

그외의 작물로는 참외, 밀, 삼(麻) 등이 일부에서 재배되었다. 標高 50m 以上의 村落에서는 대(竹)와 감을 다수 생산하여 외부 지역에 판매하기도 하였다.

나. 播種 및 收穫 時期

주요 작물별 파종 및 수확 시기는 〈표 2〉와 같다.

大麥은 11월에 播種하였으나 農家의 형편에 따라 12월 중순까지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高度에 따른 기온 차이로 高度가 높아질 수록 파종 시기가 빨라졌다. 大豆는 6월에 파종되었으나 겨울 休閑田에 綠肥를 목적으로 할

42) 동부.
43) 부추.
44) 양하.
45) 노젓가리.
46) 쪽파.
47) 제주 재래종 오이.
48) 어저귀(Abutilon Avicennae Gaertn).
49) '우영밭'이라고도 하였으며, 각 농가 울타리 내의 뒷뜰 혹은 옆뜰을 의미함
50) 주로 山橘, 唐柚子를 재배하였다.

경우는 5월말에서 6월초 사이에 파종되었다. 棉花는 겨울 休閑田은 4월에, 麥後作은 6月에 파종하였다. 무우는 7月末에 파종하여 12月과 이듬해 1월까지 수확하였으며, 배추는 密播하였다가 자라는 정도에 따라 솎아 식용으로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수확하는 것으로 김장을 담궜다. 참깨는 〈표2〉에서와 같이 겨울 휴한田의 경우와 麥後作의 파종 및 수확 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夏作物과 混作되었다. 감자는 〈표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봄 감자가 주로 재배되었다.

〈표 2〉 主要 作物別 播種 및 收穫時期

○ : 파종 △ : 정식 ▦ : 수확

| 경지 | 재배시기 / 작물 | 재배시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畓 | 水 稻 | | | | (음력) | ○ | △ | | | | ▦ | | |
| 田 | 大 麥 | | | | | ▦ | ▦ | | | | | ○ | ○ |
| | 粟 | | | | | | | ○ | ○ | | ▦ | | |
| | 大 豆 | | | | (綠肥) | ○ | ○ | ○ | | ▦ | ▦ | | |
| | 小 豆 | | | | | | | ○ | ○ | | ▦ | | |
| | 綠 豆 | | | | | | | ○ | ○ | | ▦ | | |
| | 고구마 | | | | ○ | | △ | △ | | | ▦ | | |
| | 棉 花 | | | | ○ | | | ○ | | | ▦ | ▦ | ▦ |
| | 陸 稻 | | | | | (麥後作) | | | | | | ▦ | |
| | 麥 | | | | | | | | ○ | | ▦ | | |
| | 무 우 | ▦ | | | | | | ○ | | | | | ▦ |
| | 감 자 | | | ○ | | | ▦ | | | | | | |
| | 배 추 | | | | | | | | ○ | | | ▦ | |
| | 참 깨 | | | | | (麥後作) | ○ | | ▦ | ▦ | | | |

다. 播 種

1) 윗씨와 아랫씨

작물의 파종은 耕墾 후 파종하여 선비로 覆土하는 방법과 파종후 耕墾하여 覆土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를 윗씨라 하였으며, 후자를 아랫씨라 하였다. 大麥과 식량용인 大豆를 제외하고는 윗씨를 택했다.

大麥과 大豆는 種子를 散播한 다음 耕墾한 후 再次 고랑에 摘播하여 발(足)로 覆土하였다.[51] 大麥은 寒害를 최소화해야 하였던 작물이었기 때문에, 大豆는 乾害를 예방하여 뿌리의 건전한 발육을 꾀하여야 하였던 작물이었기 때문에[52] 아랫씨로 播種하였다. 그러나 大豆는 장마로 인한 과습으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고랑에의 摘播는 공간을 충분히 이용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2)耕墾와 播種

標高 200m 以下의 지역에서는 여름 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大麥을 수확한 다음 1회의 耕墾를 하고 再耕과 동시에 작물을 파종하였다. 겨울에 휴한한 田은 '봄 번한다.'[53]고 하여 3월 혹은 4월에 1회의 耕墾를 하고 再耕과 동시에 작물을 파종하였다. 이는 봄 가뭄에 대비하여 攪擾層(mulch)을 형성하기 위한 耐旱農法[54]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습한 토양을 深耕하여 地中의 모세관을 차단하여 토양의 냉동, 풍화를 촉진하고 병충해를 방제하여 잡초 뿌리를 말려 죽이기 위한 秋耕[55]의 예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本島의 토양이 비교적 가볍고 건조하기 때문에 겨울旱魃로 因한 飛散을 防止하고, 겨울 가뭄과 서리로 인한 浮土 현상으로 병충해의 방재가 저절로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標高 200m 以上의 뜬밭에서는 蕎麥 파종 전에 再耕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뜬밭의 가벼운 토양 특성으로 볼 때 前述한 바와 같이 熟地化에 目

51) 발(足)로 覆土하기가 흙이 없어 어려우면 호미를 이용하기도 함.
52) 李殷雄, 《食用作物學 各論》 서울 富民文化社, 1970, pp. 264~429.
53) 전술한 바와 같이 '번한다'는 방언은 휴한의 의미와 함께 耕墾의 의미를 함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54) 李鎬澈, 《朝鮮前期 農業 經濟史》 서울 한길사, 1986, pp. 310~312.
55) 上揭書, P. 310.

的이 있었던 것이었다.

3)施肥와 播種

작물 재배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비는 파종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大麥과 棉花를 제외하고는 거의 追肥가 없었다.

大麥 播種에 있어 시비의 형태는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돼지우리에서 만들어진 돗거름[56]을 마당에 꺼내어 거름과 種子를 쇠스랑으로 골고루 섞고 牛馬나 사람의 발로 밟아 찐걸음을 만든다. 이 찐 거름을 밭으로 옮겨 撒播한 다음 耕犂하여 覆土한다. 再次 찐걸음을 고랑에 摘播하여 발(足)로 覆土하는 방법으로 이 播種 방법은 빈번한 旱魃로 인한 피해를 防止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57] 둘째, 돗거름, 쇠거름, 海藻, 魚肥 등을 田에 골고루 뿌린 다음 散播하고 耕犂한 후 고랑에 摘播하여 覆土하는 방법, 셋째, 綠肥(大豆)의 根耕과 牛馬를 田에 넣어 牛馬의 糞과 尿가 施肥된 休閑田일 때는 시비없이 散播하고 耕犂한 다음 摘播하여 覆土하는 방법, 네째, 人尿와 바닷물을 혼합한 肥料를 追肥할 예정지를 선정하여 시비없이 파종하는 방법 등이 있다.

첫째와 둘째의 방법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과 비료의 양에 따라 선택된다. 토지 소유 면적에 비하여 비료의 양이 작을 때는 첫째의 방법이, 그 반대의 경우는 둘째의 방법이 선택된다. 標高 50m 以上의 주민들은 다수의 牛馬를 사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량의 돗거름 제조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토지 소유 면적이 넓었고 다른 비료를 구할 수 없었으므로 첫째의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에 標高 50m 以下의 지역에서는 牛馬를 소유하지 못한 小農이 많았다. 따라서 돗거름 제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海藻, 魚肥 등의 비료를 구할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토지 면적이 협소하여

56) 돗거름은 2~3평 정도의 땅을 파서 돌담으로 울타리를 둘러 만든 돼지 우리에 브리짚 등의 각종 농업 부산물이나 잡초 등을 수시로 넣고, 또한 소가 먹다 남긴 사료를 넣는다. 그러면 돼지가 糞尿를 배설하고 끊임없이 밟아줌으로서 만들어지는 거름이다.

57) 南仁熙, 前揭書, p. 44.

첫째와 둘째의 방법이 공존하고 있었다. 둘째의 방법으로 시비할지라도 첫째의 방법으로 시비할 때 보다 시비의 양이 많지 않았는데, 이는 2년 3작식 작부체계에서 田의 全面에 施肥를 함으로서 지력의 유지를 도모하려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의 방법에 있어 綠肥의 根耕으로 파종하기 위해서는 優等地인 질왓과 人力의 여유가 있는 부유한 農家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으며, 牛馬의 糞과 尿로 시비되었을 때는 둘째의 방법으로 시비되기도 하였다.

네째의 방법은 빈농 혹은 近距離에 우등지인 질왓이라는 조건에 의해 선택되는 방법으로 토지 면적이 협소하였던 標高 50m 以下의 지역에서 다수 존재하였다. 바다와 遠距離 주민들은 이 방법으로 大麥을 재배할 경우 人尿만을 시비하였다.

메밀(蕎麥)과 棉花파종에는 灰가 시비되었다. 棉花는 灰와 種子를 혼합하여 散播하거나 摘播하였다. 棉花 파종에는 海藻가 동시에 시비되기도 하였다.

標高 200m 以上의 뜬밭에서는 地力이 떨어졌을 때에만 陸稻와 조(粟)에 灰를 시비하였으며, 표고 200m 以下의 지역에서는 무기조의 경우에만 灰를 시비하였다.

그 외에 참외 파종에 돗거름, 灰, 人尿가 감자에 灰가 시비되었다. 그리고 農家의 공간에서 재배된 각종 작물에 灰와 尿 등 비교적 많은 시비가 있었다.

반면에 豆科 作物에는 시비를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大麥과 棉花, 참외, 배추를 제외하고는 거의 追肥를 하지 않았다.

#### 4) 鎭壓과 播種

작물 파종에 鎭壓作業이 투입되는 작물에는 조(粟), 陸稻, 피(稷) 등이 있다. 조(粟)는 種子가 작기 때문에 覆土를 두껍게 하면 안되고 파종 후 건조에 의해 발아가 불량해질 염려가 있는 작물이다.[58] 따라서 파종과 동시에 철저한 鎭壓作業이 있었다. 陸稻와 피(稷)는 건조한 토양에서 재배하려면 발아를 돕

58) 池泳鱗, 《田作》 서울 鄕文社, 1969, p. 163.

기 위한 鎭壓作業이 필요한 작물이다.[59] 따라서 건조한 토양인 뜬밭에서 주로 재배되면서 鎭壓作業이 있었다.

라. 除 草

除草作業은 호미에 의한 人力 제초였다. 連作과 休閑에 따라 1일 제초 가능 면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休閑은 地力 회복과 아울러 간접 제초의 효과도 있었다.

제초는 大麥은 1~2회, 大小豆는 1회, 조(粟)는 3회 정도 행하였다. 조(粟)의 맨 처음의 제초 작업에는 솎아주기가 병행되었다.

조(粟)가 파종되어 발아될 때까지 降雨가 없어'마가지'가 되면 3회의 제초 작업만이 투입되고, 1인 1일 제초 가능 면적이 50평 내외가 된다. 그러나, 降雨로 인해 발아와 함께 잡초가 자라나고, 조의 생육이 저해되는 '마마진조'가 되었을 때는 제초를 해야만 하는 회수가 증가하고, 1일 제초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生育이 극히 불량하여 조(粟)의 재배를 포기하고 休閑하거나 대체 작물로 메밀을 재배하기도 하였다.

棉花는 작은 면적에서 재배되었고, 집약적 노동이 투입되었던 작물로 여러 차례의 제초작업이 투입되었다. 棉花의 제초는 일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보다는 여유있을 때마다 수시로 조금씩 제초하는 경우가 많았다.

標高 200m以上의 지역에서는 陸稻와 조(粟)를 재배할 때 2~3회의 제초작업이 있었으나, 그 이외의 작물은 거의 제초하지 않았으며, 이 지역은 移動農耕地帶였기 때문에 제초 작업이 容易하였다.

마. 施 肥

1) 肥料의 種類

비료의 종류에는 ᄃᆞ거름, 쇠거름, 綠肥, 人尿, 灰, 魚肥, 種子, 모래, 牛馬糞 등이 있었으며,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표 3〉과 같다.

59) 南仁熙, 前揭書, p. 84.
李殷雄, 前揭書, p. 117.

①제1유형

綠肥로서 大豆는 주로 優等田인 질왓에서 사용되었으며, 5月 혹은 6月초에 파종하여 8月에 베어 깔아 두었다가 9월에 耕耘하여 흙을 덮어 腐植시켰다. 잡초는 休閑時에 1~3회의 耕耘를 통하여 지력 회복 및 잡초 구제의 효과와 아울러 시비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옥게기란 베쩌(Vetch)[60]의 일종을 말하는 방언으로 약 50여년전 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綠肥이다. 옥게기는 休閑田과 조(粟)가 재배되는 田에는 8月 하순에 파종하였고, 조(粟)의 根耕으로는 11월에 播種하여 綠肥로 사용하였다. 작지왓의 지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한다.

〈표 3〉 肥料의 種類

| 구분 / 유형 | 비 료 | 비료의 성분 | 시비된 작물 |
|---|---|---|---|
| 제1유형 | 綠 肥 | 大豆, 잡초, 옥게기 | 大麥, 粟 |
| | 돗거름 | 보리짚, 잡초, 돼지 배설물, 쇠거름 | 大麥, 粟, 참외 |
| 제2유형 | 쇠거름 | 牛馬의 사료와 배설물 | 大麥, 粟 |
| | 尿 | 人尿, 人尿와 바닷물의 혼합 | 大麥, 棉花, 참외, 배추, 기타 |
| | 灰 | 땔감의 부산물, 牛馬糞 태운 재 | 蕎麥, 棉花, 陸稻, 粟, 기타 |
| | | 草木灰 | 粟, 稷, 小豆 |
| 제4유형 | 種 子 | 大豆, 小豆 | 大麥, 粟 |
| 제5유형 | | 牛馬의 糞과 尿, 모래, 陸 | 大麥, 粟 |
| | 기 타 | 稻의 짚, 기타 | |

②제2유형

이 유형은 陸地에서 구하는 재료를 원료로 하여 가공되는 肥料이다. 먼저 돗거름의 생산은 그 원료만 충분하면 돼지 한 마리로서 많은 양의 생산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돼지 사육에 따르는 사료의 부족과 농촌 생활의 어려움으로 육식이 극히 어려웠던 시대적 환경이 농경에 직접 투입되는 중요한 에너지 자

60) 학명 : Vicia spp.

원이며 초식 동물이었던 우마와는 달리 돼지는 각 가정마다 한 마리를 사육하는데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쇠거름은 '쇠막'[61]에서 牛馬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牛馬가 먹다 남긴 각종 곡물의 짚이나 牛馬의 糞과 尿가 혼합되어 제조된 비료로서 주로 돼지우리로 옮겼으나 보리 파종에 직접 施肥되기도 하였다.

尿는 마당의 한쪽 귀퉁이에 오줌 항아리를 1~2개 마련하여 땅속에 묻고는 그 곳에 소변을 보도록 하여 만들어진 비료이다. 大麥에 시비할 때는 바다와 近距離에 있는 주민들은 바닷물을 2~3배 정도 혼합한 비료를 시비하였다. 人尿와 바닷물의 혼합 비료를 바다에 근접하여 있는 標高 50m以下의 지역에서는 '솔박'[52]을 이용하여 撒布하였으나, 바다와 거리가 먼 50m以上의 지역에서는 소라껍질을 이용하여 大麥의 주(株)에만 시비하였다. 人尿는 그 외에 棉花, 배추, 참외, 그리고 농가의 공간에서 재배되는 작물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비료이다.

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땔감의 재(灰)를 '불채막'[63]에 모아 두었다가 사용하거나, 牛馬의 糞을 주워서 태워 만들어 사용하였다. 습기찬 재(灰)는 마당에서 건조시켰으며, 돌맹이 등 찌꺼기는 '얼맹이'[64]로 골라낸 다음 사용하였다. 灰는 메밀, 棉花, 陸稻, 조 등과 농가의 공간에서 재배된 작물 등 人尿와 함께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비료이다.

草木灰는 標高 800m 以上의 지역에서 친밭 농사를 위하여 나뭇가지를 잘라내어 건조시킨 다음 태워서 만든 비료로서, 조, 팥, 피(稷) 등에 시비되었다.

③ 제3유형

이 유형은 바다에서 구하는 肥料로서 標高 50m 以下의 지역에서만 사용되었다.

61) 牛馬를 사육하기 위하여 지은 집, 즉 소의 우리.
62) 農具의 一種,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였음.
63) '불채'란 灰를 의미한다. 따라서 灰를 모아두는 집이란 뜻.
64) 農具의 一種,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였음.

魚肥는 주로 멸치였으며 애월읍의 서부지역, 즉 애월리를 포함한 서부지역에서 많이 잡혔다. 동부지역에서는 간혹 多量으로 잡히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비료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잡히지는 않았다. 멸치가 많이 잡힌 지역에서는 멸치를 잡기위한 계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그물을 짜고 떼배는 대여하여 멸치를 잡았다. 멸치외에는 복어, 고등어도 魚肥로 사용되었다. 어비는 멸치, 고등어, 복어 등을 건조시켜 건조한 海藻類와 함께 쌓아 두었다가 사용하거나, 장마로 인해 건조가 불가능할 때에는 재(灰) 속에 묻어 두었다가 사용하였다. 어비 역시 주로 대맥의 파종에 사용되었으며"맬 한섬이면 보리 한섬"[65]이라고 하여 어비의 시비 효과가 매우 좋았음을 짐작하게 하여 주고 있다.

海藻類는 ᄆᆞᆷ[66], 그리고 ᄆᆞᆷ과 함께 채취한 해조로서 ᄆᆞᆷ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해조를 풍조와 생조로 구분하였다. 전자를 '장ᄆᆞᆷ' 후자를 'ᄀᆞ지기ᄆᆞᆷ'이라고도 하였다. 풍조는 바람에 의해 저절로 바닷가로 밀려온 해조를 의미하며, 생조는 떼배를 이용하여 채취한 해조로서 4~5m되는 긴 낫을 이용하여 캐어냈다. 해조는 건조시켜 쌓아 두었다가 역시 대맥 파종에 주로 이용하였다. 해조는 지역에 따라 사용 빈도가 달라졌는데 해안에 海蝕崖가 발달되어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해조를 채취할 수 없어 해조의 사용 빈도가 적었던 것으로 추측되었다.[67]

④ 제4유형

이 유형은 豆科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나타나는 輪作의 효과, 즉 토양중의 질소를 증가시켜 지력 회복을 도모한 것으로, 대두나 소두를 재배하여 수확하고 후작물에의 시비 효과를 도모하였다.

⑤ 기타

1~4유형에 속하지 않는 비료로서 陸稻의 짚은 대(竹)나무에 깔아 시비하였으며, 休閑하는 작지왓과 마모른밭에 牛馬를 넣어 糞과 尿로 시비의 효과를

65) '맬'은 멸치의 방언.
66) 모자반의 방언.
67) 신엄리, 중엄리, 구엄리.

도모하였고, 'ᄀᆞ린장[68]', '멜젓'[69] 등이 부패하였을 때 등 부패된 음식물도 비료로 사용되었다.

모래의 客土는 질왓에서만 있었으며, 그 외의 田은 밭이 '식는다'고 하여 모래를 客土하지 않았다. 標高 50~150m의 지역에서 무우를 다량 재배하였으나 흉년으로 무우가 팔리지 않아 '무우 한바리와 모래 한바리를 바꾸어 주었다'라는 이야기는 모래의 客土를 반증하여 주는 단적인 사례이다.[70]

2)施肥의 量과 回數

상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비료는 주곡인 大麥의 재배에 사용되었고, 조(粟)에는 大麥에의 시비효과가 이어졌다. 大麥의 파종에 標高 50~200m의 지역에서는 ᄃᆞᆺ거름을 1마지기[71]에 2바리~5바리를 시비하여 평균 3바리 정도 시비하고 있었다. 반면에 50 以下의 지역에서는 '3바리로 6마지기 시비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하면 보리 농사가 안된다'라고 하여 1마지기에 0.5바리까지 시비의 양이 적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1마지기당 최저 시비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施肥의 量 차이는 牛馬의 소유 정도의 차이에서 오는 ᄃᆞᆺ거름 생산 능력의 차이에 원인이 있었다. 標高 50m 以下의 주민들은 ᄃᆞᆺ거름외의 비료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료를 함께 시비함이 없이 ᄃᆞᆺ거름의 시비 量이 적었음은 비료 총생산량면에서도 高地帶의 농가보다 비료 생산 능력이 劣惡하였음을 입증하여 주고 있었다.

특수한 사례로서 今德里에서는 1마지기[72]에 최고 8바리까지 시비하고 있었다. 이 마을은 標高 200m 以上에 위치함으로 인한 토질과 기후의 惡條件으로 많은 양의 시비가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68) 부패한 된장 및 간장.

69) 멸치로 담근 젓.

70) '바리'란 소 한마리에 싣을 수 있는 양으로 곡물 등 농산물의 수량 측정 단위로 사용되었다.

71) '마지기'란 면적을 측정하는 단위로 1마지기에 해당하는 면적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標高 50m 以下의 지역에서는 100평, 50~200m의 지역에서는 120평, 200m이상의 지역에서는 15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72) 今德里는 1마지기가 150평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尿와 바닷물의 혼합 비료를 追肥할 것을 예정한 大麥에는 최고 3회까지 시비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재배 가능한 면적은 '6~7식구라야 500평 정도나 가능하다'고 하여 극히 제한된 면적이었다.

標高 200m 以上의 지대에서 재배되는 메밀의 파종에는 300평당 灰 7~10바리가 시비되었다. 陸稻와 조(粟)에 있어서는 灰의 여유가 있을 때 혹은 地力이 소모되었을 때에만 시비하였다.

그 외의 작물에는 棉花에 灰와 人尿가, 참외에 돗거름과 人尿, 배추에 人尿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집중 시비되었다. 그리고 감자 파종에 돗거름과 灰가 시비되었다.

상술한 외에는 大豆, 小豆, 피(稷), 陸稻, 고구마, 무우, 조(粟)등에 거의 시비가 없었다.

바. 收穫과 脫穀

1) 收穫量

본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응답을 중심으로 하여 최고와 최저의 수확량을 조사하고, 1913년, 1932~1936년 5개년 평균, 1938년의 本島 10a當 평균 수확량 통계는 〈표4〉와 같다.

최저 수확량은 風水害나 旱害등으로 失農을 하는 경우는 제외되었으며, 최고 수확량은 '기적에 가까운 수확을 보았다'라는 주민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다.

大麥과 大豆, 小豆를 제외하고는 本島 10a당 평균 수확량보다 본 지역의 최저 생산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본 지역의 토질이 비교적 비옥하다는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표4〉에서 大麥과 조(粟)의 최저 수확량과 평균 수확량이 다른 작물보다 높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주곡인 大麥에 집중적인 시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그 보다는 이 작물이 본도 토양과 기후에 적절한 작물이었기 때문에 식량 확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불가피하게 선택된 작물이었다고 생각된다.

〈표 4〉 主要 作物別 收穫量 比較

| 區分 | 作物 | 10a當 수확량 | | | | |
|---|---|---|---|---|---|---|
| | | 調査地域 | | 濟州島 | | |
| | | 最高 | 最低 | 1913 | 1932~1936平均 | 1938 |
| 穀類〈石〉 | 大麥 | 6 | 1 | 1.64 | 1.23 | 1.06 |
| | 粟 | 5 | 1.4 | 1.35 | 0.62 | 1.19 |
| | 陸稻 | 3 | 0.8 | 0.31 | 0.46 | 0.69 |
| | 蕎麥 | 4 | 1 | 0.95 | 0.56 | 0.84 |
| | 稷 | 5 | 1 | 0.86 | | 0.93 |
| 豆〈石類〉 | 大豆 | 2 | 0.2 | 0.39 | 0.30 | 0.38 |
| | 小豆 | 2 | 0.2 | 0.35 | | 0.32 |
| 薯菜蔬類〈貫〉及 | 고구마 | 360 | 200 | 308.5 | 236 | |
| | 감자 | | | | 134.5 | |
| | 무우 | | | | 51.7 | |
| | 배추 | | | | 133.5 | |
| | 오이 | | | | 70.7 | |
| 其他 | 胡麻 | 0.6石 | | | | 0.224石 |
| | 在來棉 | 4.5正 | 2正 | | | |
| | 陸地棉 | 15正 | 5正 | | 83斤 | 99斤 |

註)1) 1913년, 1932~1936년 평균, 1938년 濟州島 통계 공란은 자료에 수확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2) 조사지역 통계의 빈난은 小量만이 재배되어 생산량 제시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였음.

資料 : 1913년 통계는 濟州郡勢一斑(全羅南道 濟州郡廳, 大正三(1914)年刊), 1932~1936년 평균과 1938년은 濟州島勢要覽〈濟州島廳 昭和十二(1937)年刊, 昭和十四(1939)年刊〉.

陸稻는 標高 200m 以下의 지역에서는 극히 少量의 재배를 하였으나, '수확철이 되어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거의 수확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메밀(蕎麥)도 濕害나 태풍 등으로 조(粟)농사에 실패하였을 때

대체 작물로 재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노ᄀᆞᆺ이 없어서 메밀 재배가 잘 안된다'. '노ᄀᆞᆺ이 잘 부는 해에 메밀 농사가 잘 된다'[73]고 하여 결실기인 10월에 강우량이 작은 본도의 기후 특성상 적절치 못한 불안정한 작물이었다. 그리고 標高 200m 以上의 지역에서는 高地帶의 기후 특성상 大麥의 栽培는 불가능하였으나, 陸稻나 메밀의 재배는 비교적 안정되었다. 그러나 조(粟)의 수확량에는 미치지 못하여 빈농은 우선적으로 조(粟)를 재배하였다.

大豆, 小豆는 수확량이 격차가 심한 작물이었으나, 大麥과 조(粟) 다음으로 본도의 토양과 기후에 적응성이 강하였고, 아울러 豆科 作物의 栽培를 통한 輪作의 효과를 도모하였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재배하였으며,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고구마, 감자, 무우, 陸地棉이 보급되어 다량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시기를 주민들은 60여년 전으로 주장하고 있다. 〈표5〉는 이러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계적으로 뒷바침하여 주고 있다. 재배 면적에 있어서 고구마는 1913년에 비하여 1938년에 12배, 무우는 1913년에 비하여 1939년 9.3배, 감자는 1913년에 비하여 1939년에 15배 증가하였다. 棉花는 濟州道勢要覽[74]에 의하면 400년전부터 재배가 시작되어 朝鮮 在來棉을 1천ha내외 재배하여 오다가 1914년에 陸地棉을 보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1914년 재배 면적을 1천ha라고 할 때 1932년에 1.9배, 1938년에 25.3배 재배 면적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濟州道勢要覽에 의하면 애월면의 1938년 고구마 재배 면적은 840ha, 1932년 면화 재배면적은 335.8ha로 되어 있고, 고구마는 제주읍과 한림읍 다음으로 넓은 면적에서, 면화는 한림읍 다음으로 넓은 면적에서 재배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資料를 기준으로 1913년의 애월면 재배 면적을 계산하면 고구마는 70ha, 면화는 13.4ha로 推算된다.[75] 이 면적은 1936년에 애월면 경지면적 5,933ha를 기준[76]으로 할 때 고구마는 1.2% 면화는 0.2%에 불과한 것

73) '노ᄀᆞᆺ'이란 습기가 많은 기후 혹은 바람 등을 의미한다.
74)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濟州島廳, 1939.
75) 고구마는 12배, 면화는 25배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推算하였다.
76)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濟州島廳, 1937.

이다.

이와 같이 1930년대는 본도 농업의 중요한 轉期가 되고 있다. 즉 大麥, 조, 大小豆 중심의 체계였던 본도 농업에 고구마, 면화, 무우, 감자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표 5〉 作物別 경작 면적 변화 추세

| 년도 / 구분 / 작물 | 1913 | | 1932 | |
|---|---|---|---|---|
| | 재 배 면 적 | 수 확 량 | 재 배 면 적 | 수 확 량 |
| 고 구 마(貫) | 599.8ha | 1,850,143 | ha | |
| 무 우(貫) | 104.2 | 53,864 | | |
| 감 자(貫) | 7.6 | 10,223 | | |
| 면 화(斤) | | | 1,899.7 | (2,089,670) |
| 년도 / 구분 / 작물 | 1938 | | 1939 | |
| | 재 배 면 적 | 수 확 량 | 재 배 면 적 | 수 확 량 |
| 고 구 마(貫) | 7,332 ha | 23,435,280 | ha | |
| 무 우(貫) | | | (968.5) | 500,629 |
| 감 자(貫) | | | (113.5) | 153,127 |
| 면 화(斤) | 25,274 | 2,508,099 | | |

註)1) ( )의 수는 濟州郡勢一斑에 제시된 1ha當 생산량 516.8貫, 감자는 1345.1貫을 기준하고, 면화는 濟州島勢要覽(昭和 12년)에 제시된 10a當 생산량 110斤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임.

2) 공난은 자료의 부족으로 제시하지 못하였음.

資料 : 1913년은 濟州郡勢一斑〈全羅南道 濟州郡廳, 大正3(1914)年刊〉, 1932. 1938년은 濟州島勢要覽(濟州島廳, 昭和12년(1937) 年刊, 昭和14년(1939) 年刊〉, 1939년은 濟州農業의 百年(南仁熙, 前揭書 p.45)에서 再 引用.

2)收穫과 脫穀

대부분의 作物은 낫으로 베어낸 다음 타작 작업을 거쳐 '돌ㅋ래'[77], '남방

77) 맷돌.

애[78] 연자마를 이용하여 精米하였다.

穀物를 탈곡하는 방법은 作物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작물의 탈곡 방법은 〈표 6〉과 같다

〈표 6〉 主要 作物別 脫穀 方法

| 作 物 名 | 타 작 방 법 |
|---|---|
| 보 리<br>(大麥) | ① 보릿단을 도리깨로 때려 알곡을 골라내는 방법<br>② 보리클로 이삭을 따내어<br>ⅰ) 도리깨로 때리는 방법<br>ⅱ) 소나 말로 밟는 방법<br>ⅲ) 연자마를 이용하는 방법 |
| 조(粟) | ○ 이삭을 낫으로 따내어<br>ⅰ) 발로 부비는 방법<br>ⅱ) 마개로 때리는 방법<br>ⅲ) 도리깨로 때리는 방법<br>ⅳ) 연자마를 이용하는 방법 |
| 陸 稻 | ○ 이삭을 낫으로 따내거나 산듸(陸稻)클로 따내어<br>ⅰ) 도깨로 때리는 방법<br>ⅱ) 채위에 놓아 손으로 밀어내는 방법<br>ⅲ) 연자마를 이용하는 방법 |
| 大豆, 小豆<br>蕎麥 | ○ 도리깨로 때리는 방법 |

大麥은 5월에 낫으로 베어다 마당에 쌓아둔다. 夏作物의 파종을 끝낸 다음 장마철이 지나면 타작 작업을 한다. ①의 방법으로 타작을 하여 오다가 약 60여년 전부터 클이 보급되어 ②의 방법으로 전환되었다.

①의 작업 순서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작업 : 보릿단을 지름이 약 30㎝정도로 조금씩 묶는다→보릿단을 마주 깔아 놓는다→양쪽에서 도리깨로 때리고, '저쇠질꾼'[79]은 타작하는 사이를 오가며 보릿단을 뒤집는다→보리짚과 알곡을 분류한다.→알곡을 불림질하여 ㅁ

78) 방아의 일종, 상세한 내용은 후술.

79) 보릿단을 뒤집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을 부른는 말.

시락(芒)을 골라낸다.

2차 작업 : 보릿단을 느슨하게 풀어 이삭쪽이 위로 가도록 세운다→'고림질 장남'[81]이 도리깨로 때린다→보리짚과 알곡을 분류한다→알곡을 불림질하여 고시락(芒)을 골라낸다.

2차 작업은 大麥의 수확량이 小量일 경우에는 보릿단을 풀어 헤쳐 이삭을 골라낸다. ①의 방법과 유사한 타작 작업이 경북 安東에서도 행하여졌던 것으로 보인다.[82]이러한 타작 과정이 끝나면 보리짚을 다시 쌓아둔다. 타작에 종사한 사람들에게 쉰달이[83], 술, 흰죽[84]을 대접하였으며, 흰죽은 '더위가 가신다'고 하여 대접하였다고 한다. 보리짚을 쌓은 눌은 그 집안의 부의 상징이었으며, 결혼 적령기의 자녀을 둔 가정에서는 보리짚을 빌려다가 눌을 쌓기도 하였다고 한다.

②의 방법은 초기에는 대(竹)로 만든 클을 사용하다가 후에 쇠(鐵)로 만든 클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클로 이삭을 분리한 다음 도리깨로 때리는 방법으로, 小量일때는 연자마를 이용하였다. 소나 말로 분리된 이삭을 밟는 방법은 극히 일부에서 사용되었던 듯하다. 大麥의 탈곡작업은 장마직후에 있었기 때문에 연자마에서 탈곡한 다음 비가 내려 건조시키지 못하면 '쉰보리'[85]로 밥을 지어 먹은 예도 있었다고 한다.

조(粟)의 탈곡은 이삭을 낫으로 분리한 다음 연자마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였으며, 多量일 때는 도리깨로 타작하고, 小量일때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탈곡하였다.

陸稻는 낫으로 이삭을 분리한 다음 도리깨로 때리거나, 연자마를 이용하는 방식이 주로 쓰였으며, 小量일 때는 얼맹이에 이삭을 놓고 손으로 는 방법

80) 바람에 芒을 불리는 작업.

81) 새워진 보릿단을 타작하는 사람으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였다고 한다.

82) 張籌根 · 權振鼎, "韓國 在來 農耕의 地域差", 《韓國의 農耕文化》 京畿大學校 出版部, 1983, p. 173.

83) 주로 보리밥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음식으로 변질될 듯한 밥을 이용하기도 한다.

84) 쌀(稻)로 만든 죽.

85) 변질된 보리.

을 이용하였다. 클이 보급된 후에는 클로 이삭을 분리하기도 하였으나 陸稻의 생산량이 小量이었기 때문에 클은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되었다.

大豆, 小豆, 메밀은 도리깨로 직접 타작을 하였으며, 大豆, 小豆의 경우 小量이었을 때는 알곡을 손으로 골라내기도 하였다.

### 3. 作物의 利用

대부분의 穀物은 식량 자급을 위하여 생산되었고, 依生活을 위하여는 棉花가 주류를 이루었고, 自然生의 뽕잎을 채취하여 누에를 기르는 사례가 극히 일부에서 존재하였다. 本島民들은 그들이 즐겨 입었던 갈옷[86]을 만드는, 혹은 그물과 같이 질기게 만들 필요가 있는 끈을 만드는 원료로 감을 많이 재배하였다. 본 지역의 標高 50m 以上의 지역에서는 자급할 정도의 감나무를 재배하고 있었으나, 50~200m의 지역에서는 他 地域에 많은 양의 감을 생산하여 공급하였다. 住生活을 위하여는 지붕을 덮은 재료인 自然生의 새(띠)를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즉 淸明에 放火 다음 돌로 담을 쌓아 울타리를 두르고, 가시나무 등의 灌木을 제거하였다. 삼간집이면 새(띠) 30묶음이 소요되었다고 한다.[87]

대(竹)는 각종의 用具를 만들거나, 건축 재료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본 지역의 標高 50~200m의 지역은 감과 함께 대(竹)의 생산지로서도 중요한 몫을 하였다. 標高 50m以下 지역의 대(竹)는 '비삭지다'[88]고 하여 用具 제작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竹製品은 대(竹)를 구입하여 죽쟁이라고 불렀던 수공업자를 고용하여 만들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竹)는 방풍을 목적으로 모든 농가의 뒷뜰에서 재배되었다.

신발은 짚신과 雨天時 사용하는 나막신이 있었다. 짚신은 水稻를 재배하는

86) 풋감을 즙으로 만들어 무명 옷에 먹여 만든 옷.

87) 30묶이란 30묶음을 의미한다. 1바리에 6묶이었다. 즉 삼간집이면 5바리가 소요되었다.

88) 쉽게 부스러지는 특성을 이르는 방언.

지역에서 짚을 구입하여 스스로 재배한 삼(大麻), 어주에 혹은 自然生의 미띠쟁이[89], 드래발[90] 등을 사용하여 스스로 만들었으며, 나막신은 속낭[91]으로 만들었다. 나막신은 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陸稻의 짚은 멍석이나 맥을 만들거나, 牛馬의 사료로 이용되었고, 大麥의 구시락(芒) 및 陸稻, 메밀 등의 겨는 '굴묵 짓는'[92] 땔감으로 사용되었다. 大麥의 짚은 취사용 땔감, 건축 재료, 돼지우리에 넣는 등 가장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메밀의 겨는 베개를 만드는 재료로 이용되었다. 그 외의 농업 부산물들은 땔감으로 이용되거나 돼지우리에 넣어 두거름의 원료로 이용되었다. 농업 부산물로서 땔감이 부족하여 牛馬糞을 주워다가 굴묵을 지피기도 하였으며, 소나무 가지, 솔잎, 灌木을 채취하여 사용하였고, 大麥의 수확기를 앞둔 약 1개월간은 땔감 채취 기간으로 상당히 먼 거리까지 가서 땔감을 채취하기도 하였다.[94]

# Ⅲ. 農業 經營 形態와 規模

## 1. 生産 手段

### 가. 勞 動

#### 1) 作物別 勞動 投入量

農業勞動 性格上 한 사람이 여러 種類의 일을 하여야 하고, 또한 사람에 따라 勞動能率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음으로 因하여 一般的, 普遍的인 勞動

89) 억새의 속(髓, pith)을 뽑아낸 것을 이르는 말로서, '미'라고도 하는데, '매우 건차다'고 하여 매우 질긴 짚신재료로 취급되었다.

90) 다래나무(Actnidia arguta)의 줄기.

91) 속나무, 즉 소귀나무(Myrica rubra).

92) 온돌 불을 지피는 장소를 굴묵이라고 하며, '온돌을 지핀다'는 말을 '굴묵 짓는다'고 한다.

93) 기울.

94) 애월리의 경우 약 15㎞ 떨어진 바리오름이나 큰오름까지 땔감을 채취하러 갔었다.

能率과 그에 따른 勞動投入 및 所要量을 계산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農業作業上의 重要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播種, 除草, 追肥, 收穫, 脫穀을 중심으로 하여 風害와 土質에서 오는 勞動投入의 차이와 開墾地와 熟田에서의 차이만을 考慮하고, 混作 및 間作物은 없으며, 사람의 勞動能率을 同一한 것으로 前提하여 主要 作物에 대한 勞動投入量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산출하였다.

〈표 7〉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파종에서 收穫에 이르기까지 10a當 大麥은 11人~25人의 勞動投入이 必要하며, 除草作業에 있어 夏作物을 재배한 후의 根耕과 休閑田의 차이가 최고~최저 勞動投入量에 영향을 주는 主要要因[95]이며, 脫穀作業에서 他 作物에 비하여 많은 人力이 所要되는 作物이다. 조(粟)는 除草作業과 동시에 솎아내기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장마로 인해 잡초가 무성하였을 때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勞動投入量이 가장 많은 작물이다.

〈표7〉에서는 人力에 대한 통계만을 제시하였다. 投入되는 축력은 耕墾에 一般的으로 소 한마리가 투입되며, 단 메밀(蕎麥) 파종 前 개간 耕墾에 2마리의 소가 投入된다. 播種에 鎭壓作業이 投入되는 조(粟)와 陸島에 있어 약 100평當 소(牛)혹은 말(馬) 1마리가 所要된다. 그 이외에 축력의 투입은 大麥의 播種을 위해 만들어지는 찐걸음의 제조에 필요하며, 운반 작업에 많은 畜力이 소모된다. 특히 메밀(蕎麥)의 播種에 "3마지기 정도 메밀을 재배하려면 열흘을 다녀와야 한다."고 하여 蕎麥 300평 파종에 灰 10바리가 시비되며 이를 운반하기 위하여는 재배지 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10마리의 소와 10인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粗放的인 경영을 하는 中山間地帶에서의 蕎麥 재배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蕎麥은 "처서가 지나면 검질이 울며 돌아 간다"는 이야기에서 처럼 처서가 지나 파종되었기 때문에 除草作業에 勞動力이 投入되지 않았다. 大豆, 小豆는 잎이 무성하여 陰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除草作業에 勞動投入量이 작았다. 棉花는 小規

95) 따라서 1년2작보다는 2년3작이, 그보다는 2년2작이 제초에 적은 노동이 투입된다.

〈표7〉 勞動投入과 能率

| 작업 | 작물 | 大麥 | | | | 조 (粟) | | | | 메밀(蕎麥) | | | | 산듸(陸稻) | | | | 大, 小豆 | | | | 棉花 | | | |
|---|---|---|---|---|---|---|---|---|---|---|---|---|---|---|---|---|---|---|---|---|---|---|---|---|---|
| | 성별 | 男 | | 女 | | 男 | | 女 | | 男 | | 女 | | 男 | | 女 | | 男 | | 女 | | 男 | | 女 | |
| | 노동능률 | 최고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최저 |
| 파종 | 1) 耕 耙 | 1 | 0.3 | | | 1 | 0.3 | | | 3 | 0.75 | | | 0.75 | | | | 1 | 0.3 | | | 0.38 | | | |
| | 2) 씨뿌리기 | 2 | 0.7 | | | 1 | 0.3 | | | 7 | 5.75 | 5 | | 0.75 | | | | 1 | 0.3 | | | 0.38 | | 0.38 | |
| | 3) 기타 | 1 | | 1 | | 1 | | 1 | | 4.25 | 0.25 | 0.25 | | 1 | | 1 | | 0.5 | | 0.5 | | 0.5 | | 0.5 | |
| 제초 | | | | 10 | 1.5 | | | 18 | 12 | | | | | | | 6 | 2.5 | | | 3 | | | | 15 | |
| 追肥 | | | | 1 | 0.5 | | | | | | | | | | | | | | | | | | | 2 | |
| 수확 | | 5 | 1.5 | 5 | 1.5 | 5 | 1.5 | 5 | 1.5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 | 3 | |
| 탈곡 | | 2.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 | | |
| 계 | | 11.5 | 6 | 18.5 | 6 | 9.5 | 4.6 | 25.5 | 16 | 17.25 | 9.75 | 8.25 | | 5.5 | | 10 | 6.5 | 5.5 | 4.1 | 6.5 | | 1.26 | | 20.88 | |

| 통계 | 노동능률 / 성별 | 최고 | | | | 최저 | | | | 최고 | | | | 최저 | | | | 최고 | | | | 최저 | | | |
|---|---|---|---|---|---|---|---|---|---|---|---|---|---|---|---|---|---|---|---|---|---|---|---|---|---|
| | | 남 | | 여 | | 남 | | 여 | | 남 | | 여 | | 남 | | 여 | | 남 | | 여 | | 남 | | 여 | |
| 계 | | 11.5 | 18.5 | 6 | 6 | 9.5 | 25.5 | 4.6 | 16 | 17.25 | 8.25 | 9.75 | 8.25 | 5.5 | 10 | 5.5 | 6.5 | 5.5 | 6.5 | 4.1 | 6.5 | 1.26 | 20.88 | 1.26 | 20.88 |
| 총계 | | 30 | | 12 | | 35 | | 20.6 | | 25.5 | | 18 | | 15.5 | | 12 | | 12 | | 10.6 | | 22.14 | | 22.14 | |

註)1) 1. 播 種

가. 耕墾

1) 海岸과 中間農業 地帶에서의 耕墾가능 면적은 최고 1,000평~최저 300평임 (大麥, 조, 小大豆, 면화재배).

2) 中山間 農業 地帶에서의 耕作 가능 면적은 開墾 耕墾는 소 2마리로 최고 200평~최저 100평이며(메밀재배), 熱田은 소 1마리로 400평 내외임 (산듸재배).

3) 면화는 우등지인 질왓에서 주로 재배되었으므로 耕墾면적 800평을 기준으로 함.

나. 씨뿌리기

1) 大麥의 최고 : 진거름을 撒播할 때, 최저 : 種子만을 散播할 때.

2) 메밀 : 300평에 灰 10바리 施肥를 위한 운반 작업에 10일이 소요됨, 최저와 최고는 散播와 摘播의 차이.

3) 기타 作物은 耕墾 면적과 파종 면적이 동일함.

다. 기 타

1) 大麥 : 耕墾 후 摘播한 다음 발(足)로 覆土하는 작업과 겨울의 踏壓 작업에 필요한 인원.

2) 조(粟), 산듸 : 播種과 동시에 투입되는 鎭壓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

3) 메밀 : 熱治 作業과 覆土작업에 투입되는 인원.

4) 기타 작물 : 覆土 作業에 투입되는 인원.

2. 除 草

가. 大麥 : 休閑하였던 田은 1인 1일 200평, 夏작물을 재배하였던 田의 根耕은 60평 내외의 제초 가능.

나. 조 : 마가지인 경우에 限하였음. 최곤는 3회 除草, 최저는 2회의 除草에서 오는 차이임.

다. 산듸(陸稻) : 최고-조(粟) 單作型의 작부 체계는 1일1인 제초량 50평 내외, 최저-1년 1작식 작부 체계의 제1유형은 1일 1인 120평 내외.

라. 大小豆 : 1인1일 100평 내외.

마. 면화 : 1인 1일 60평 내외, 3회 제초.

3. 追 肥

가. 大麥 : 최고-株에만 尿와 바닷물의 혼합비료를 시비할 때, 최저-撒布하는 경우

나. 면화 : 尿의 追肥 1회 다. 기타 작물 : 追肥 없음.

4. 牧 種

가. 大麥과 조(粟) : 최고-바람으로 인한 倒伏의 경우, 최저-정상적인 상태일 때

나. 기타 작물 : 1인 1일 100평 내외

5. 脫 穀

가. 大麥 : 10a當 수확량을 최고인 2石을 기준으로 하고 1인 1일 脫穀量을 7.5斗를 기준으로 함(사레도리깨 8인, 고림질 2인, 저쇠질 2인, 보리단을 묶는 사람 1인, 보리단을 옮기고 쌓는 일 2인, 기타 3인, 계 18인의 脫穀量 10石, 즉 7.8斗의 탈곡)

나. 기타 작물 : 1일 1인 1石, 100평當 수확량 1石을 기준으로 함.

다. 면화는 생략하였음.

模로 재배하면서 수시로 除草하여 집중적인 勞動投入이 있었다.

2) 勞動의 存在 形態

勞動의 存在는 富農—無田民 사이의 삯노동, 小農간의 '접'과 '수눌음' 그리고 家族勞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삯노동

삯노동의 형태는 一時雇傭과 年雇傭의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年雇는 無田民의 자녀중 未婚의 成人 男子를 주 대상으로 1년~數年동안의 雇傭에 의해 일정한 댓가를 지불할것을 약속하는 삯노동으로 주로 中間地帶에서 나타났던 형태이다. 雇傭된 男子를 '장남'이라고 불렀으며, 無田民의 가정에서는 식구 중 1사람을 내 보냄으로서 식량난을 해결하려 하였고, 富農의 가계에서는 家族勞動의 보충이라는 필요에 의해 발생한 勞動의 형태로, 두가계 사이의 계약은 미리 돈을 제공하는 등의 經濟的 契約의 형태를 지닌 것이 아닌 막연한 暫定契約, 즉 '장가를 보내준다 '등의 富農의 시혜에 기대하였던 형태로서, 無田民은 이러한 年雇에 의해 日雇에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다는 利點과 農閑期에도 자녀의 생계를 富農에 맡길 수 있다는 利點등을 기대하였고, 富農은 장남에 대한 생계 이외의 큰 책임이 없이 안정적 노동확보가 가능하였기에 이루어진 삯노동으로 보인다.

一時雇傭 즉 日雇는 ① 除草, 收穫 등의 農耕과 가사노동의 필요에 따라 雇傭되었던 日雇와 ② 단순 협업적 集團 勞動力 확보를 必要로 하는 日雇 ③ 수공업자를 雇傭하여 생활용구를 제작하는 日雇로 나누어 볼수 있다.

①의 日雇에 있어 "남의 집에가 일을 하려면 새벽에 물 한 허벅을 지고가서 남방애에서 한번 쯤 보리 쌀을 찍어 주어야 일을 시켜 주었다"는 이야기에서 日雇는 富農이 삯노동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었으며, 勞動者간의 경쟁은 존재하였으나, 雇傭主간의 경쟁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허벅을 지고 간다', '남방애서 일을 한다' 등에서 주로 女性을 대상으로 한 삯노동임을 알 수 있다. 즉 ①의 형태의 日雇는 女性을 대상으로 한 日雇였으며, 勞

動者간의 경쟁은 존재하였으나, 雇傭主간의 경쟁은 존재하지 않았던 삯 노동이다.

②의 日雇는 주로 大麥을 타작할 때 나타나는 삯노동의 형태로 〈표 7〉에서 前述한 바와 같이 男性 勞動力으로 '도리깨장남'과 'ᄀᆞ림질장남'이 고용되고, 女性 勞動力으로 '저쇠질꾼'이 雇傭된다.

③의 日雇의 대표적인 예는 竹製品을 만들기 위해 대(竹)는 고용주가 구입하고 수공업자인 '죽쟁이'는 竹製品을 만들어 품삯을 받았다.

이러한 日雇에 대한 댓가는 勞動時間을 단위로 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제의 완수를 목표로 하여 주어지기 때문에 勞動의 時間은 일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해 뜰 무렵 부터 해 질 때까지의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삯이 주어진다. '수공업자'와 'ᄀᆞ림질장남'등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1일 품삯이 大麥이나 조의 '조곡'[96] 2斗이며, 그 외는 조곡 1斗가 관습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①과 ②의 삯노동은 주로 富農이 존재하였던 中間地帶에서의 勞動 存在이며, 海岸地帶에서는 '수눌음'이라는 노동교환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었다.

② 勞動交換

富農은 삯노동에 의하여 家族勞動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였으나, 小農의 노동 확보 수단은 '수눌음과 '접'이었다.

수눌음이란 他道에 있어서의 품앗이와 類似한 것으로서 農耕을 비롯하여 다수의 人力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일에 勞動을 交換하는 形態이다. 즉 農耕에 있어서의 除草, 收穫, 脫穀, 牛馬를 소유하지 못한 農家들 사이의 연자마를 이용하는 作業, 새(띠)로 지붕을 덮는 작업 등 다양한 노동교환이 존재하였다.

노동교환은 삯노동에 있어서와 같이 과제의 완수를 목표로 하여 교환되었다. 즉 하루동안 도움 받으면 하루를 갚는 형식이었다. 일의 종류나 시기 등도 구분하지 않았다. 즉 제초작업에서 도움을 받고 수확작업에서 갚기도 하고, 봄에 도움을 받고 가을에 갚기도 하였다.

96) 精米되지 않은 穀物.

'접'이란 契의 일종으로 수눌음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 노동을 교환하는 비조직적 노동교환이었던데 비하여, 접은 분명한 공동작업의 목표에 따라 조직된 노동교환 형태이다. 한 사례로서 郭支理에서는 70~80명 단위의 '그물접'을 구성하여 그물을 공동으로 짜고 떼배는 삯을 주고 대여하여 멸치를 잡아 공동 배분하였던 접이 존재하였다. 中間地帶의 주민들 사이에는 '새밭농사'에 장애가 되는 우마를 방지하기 위해 새밭을 공동으로 개간하고,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서 경작지에 우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접을 조직하였던 사례도 있었다.

③家族勞動

삯노동과 수눌음은 가족노동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였고, 대부분의 노동은 가족노동에 의해 충당되어 가족노동이 가장 중요한 노동의 존재였다. 노동 시간은 해 뜰 무렵부터 해 질 무렵까지 계속되어 농번기에는 10여시간 이상의 노동이 일반적이었으며, 農閑期에는 훨씬 짧은 시간이 投入되기도 하였다.

農閑期의 노동은 大麥의 收穫을 앞둔 4월에는 땔감의 채취, 장마가 끝나고 조(粟)파종을 끝낸 7월에는 大麥의 탈곡 작업, 조(粟) 등 夏作物의 除草作業과 메밀(喬麥)의 파종등을 끝낸 8월말~9월초의 벌초와 쇠촐[97]채취 작업, 夏作物의 收穫 후의 지붕 덮는 일, 한 겨울의 棉花를 원료로 하여 옷감을 만드는 작업 등에 投入되었으며, 눈이나 비가 올때에는 짚신, 나막신 제조에 투입되었다.

나. 農 具

1) 耕起具

耕起具에는 牛耕具로 쟁기와 手耕具로 따비와 벤졸레가 있다.

本島의 쟁기는 돌의 저항이 많은 토양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우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보습(鑱 ,그림 9)은 그 끝이 좁고 둔하게 만들어 졌으며, 볏(鎛, 그림10)은 한 쪽으로 흙을 뒤집도록(反轉耕) 만들어졌는데 그 형태나 무게가 돌의 저항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따라서 他島의 그 것과

97) 소의 사료, 즉 꼴(木草).

보습이나 볏의 형태(그림 11)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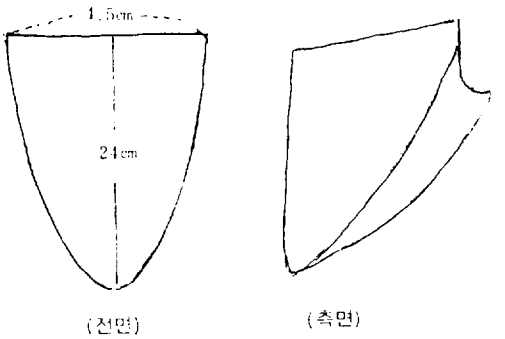
쟁기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돌의 저항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견고성이 강조되었다. (그림 12) 쟁기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단단히 잡게 만들어 쟁기 자체가 받는 돌로 인한 저항 및 이탈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볏의 뒷면에 2개의 볏 바대(볏받침)와 볏을 묶는 시설을 함으로써 역시 볏의 이탈을 억제하였고, 〈그림 1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①부분과 ②부분 사이에 볏을 끼울 수 있는 공간외의 공간을 없게 하면서 ②부분을 완만한 곡선을 띤 형태로 길게 만들어 견고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本島의 쟁기는 일제시대에 강원도, 함경도 등에서 주로 자갈 밭에서 사용되었다는 가데기 (그림 13)와도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98] 또한 本島는 大規模의 토지를 빠른 시간 내에 耕犂하기 위한 兩牛犂의 예는 찾아 볼 수 없고, 돌이 많고 좁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耕犂하기 위한 單牛 였다. 단지 未開墾地를 開墾할 때 소 2마리를 縱列로 하였다. 여기에서도 타도의 兩牛犂는 橫列로 하였는데 비하여 (그림 14), 縱列로 함으로서 강한 토지 저항에 적응한 효율적인 耕犂에 목적이 있었다. (그림 16)

手耕具에는 벤졸레(사진 1)와 따비 등이 있었다. 따비는 주로 좁은 토지의 耕起作業에 使用하였고, 벤졸레는 암반 등을 제거하는 作業에 使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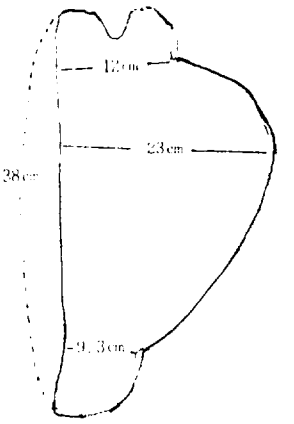
따비(朱)에는 외따비(그림 16)와 쌍따비(그림 17)가 있다. 그 역시 他道의 따비와는 달리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다. 최근 덕적도에서 발견된 금속제의 쟁기날에 구부러진 자루를 끼워 넣어 만든 '따보'(그림 18)와도 형태가 다르다.[99] 또한 本道에서는 헌 보습에 자루를 만들어 끼워 따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비는 쇠스랑과 함께 牛耕을 할 수 없는 극히 小規模의 田 및 田의 모퉁이 혹은 '친밭'을 耕起하는데 사용하였다.

98) 李鎬澈, 前揭書, p. 326.
99) 上揭書 p.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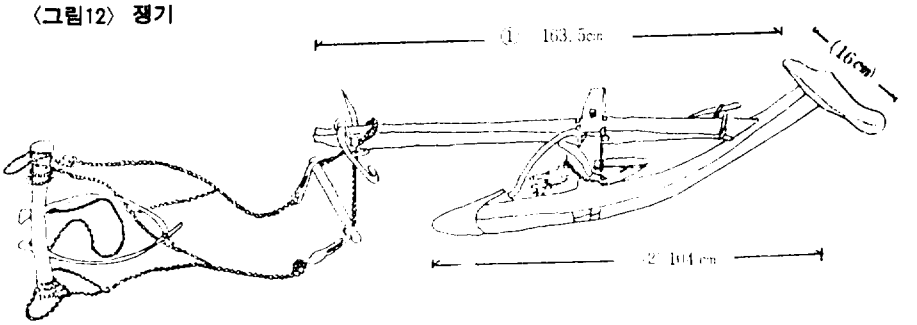
〈그림 9〉 보습(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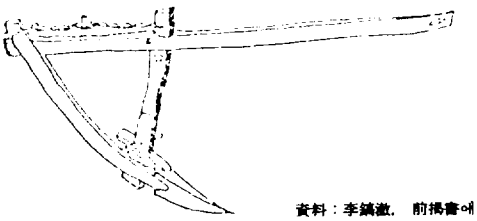

〈그림10〉 벗(僻)




〈그림12〉 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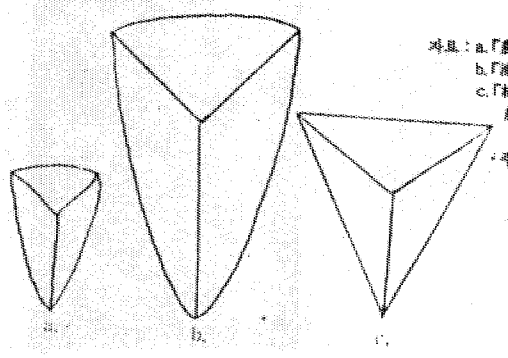



〈그림13〉 일제시대의 가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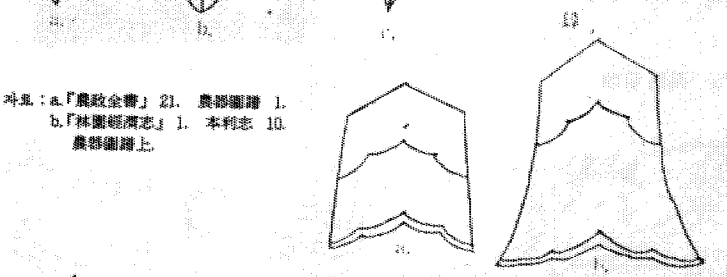
資料 : 李鎭澈, 前揭書에서 再引用

(그림11) 보습과 벗(他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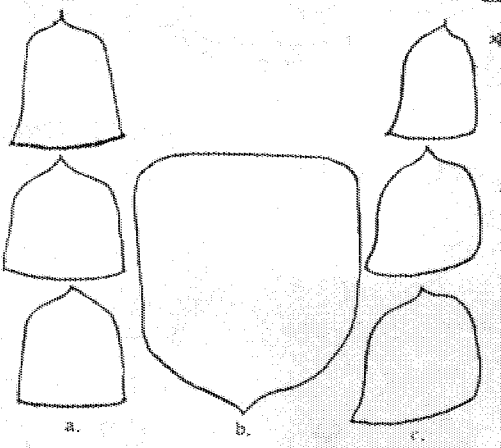


자료 : a.「農政全書」 21. 農器圖譜 1.
b.「海東農書」 2. 農器
c.「林園經濟志」 1. 本利志 10.
農器圖譜 上.

주 : 1)「海東農書」에는 ㄷ을 '보섭'이라 하였음.
2) 「林園經濟志」에도 ㄷ을 東俗名 '보섭'이라 하였음.



자료 : a.「農政全書」 21. 農器圖譜 1.
b.「林園經濟志」 1. 本利志 10.
農器圖譜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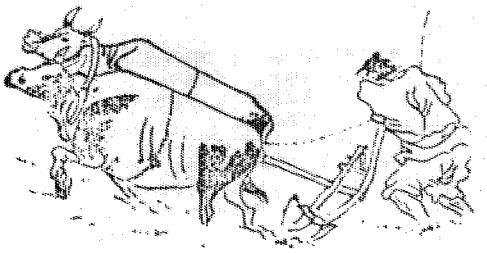


자료 : a.「農政全書」 21.
農器圖譜 1.
b.「海東農書」 2.
農器
c.「林園經濟志」 1.
本利志 10.
農器圖譜 上.

주 : 1)「海東農書」에는
ㅅ을 '벗'이라
하였음.
2) 「林園經濟志」에도
ㅅ을 '벗'이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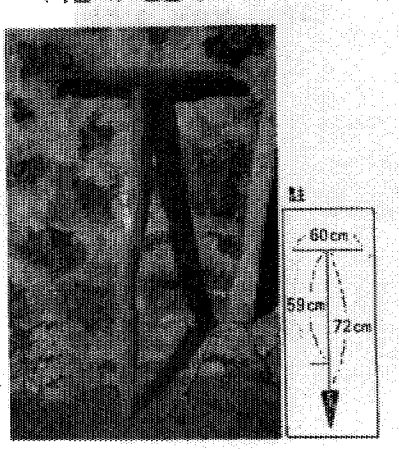
資料 : 李鎭萬, 「조선전기농업경제사」, (서울 : 한길사, 1986). p.321에서 再引用

〈그림14〉 檀園 風俗圖(18 세기)의 耕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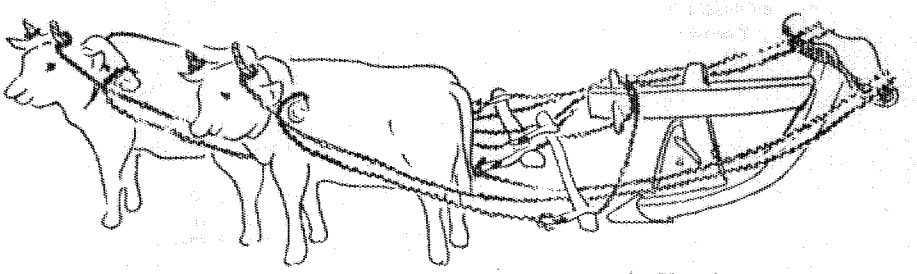


資料 : 李鎭敏, 前揭書, p.320에서 再引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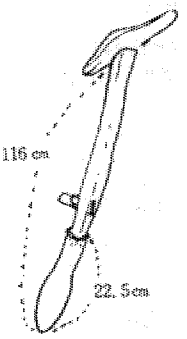
〈사진 1〉 밴쟁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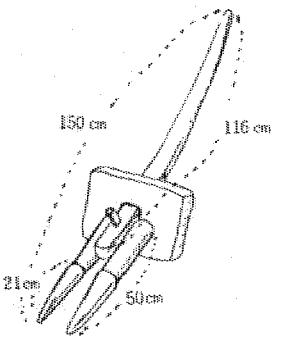

〈그림 15〉 開墾 耕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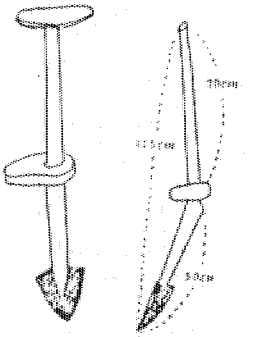
〈그림 16〉 외따비




〈그림 17〉 쌍 따비




〈그림 18〉 덕적도의 따보



資料 : 李鎭敏, 前揭書, p.327에서 再引用

2) 熟治, 覆土, 除草具

熟治 作業에 주로 쓰였던 도구로는 곰베(櫂木, 사진2)가 있었다. 곰베는 田을 耕犁한 다음 '빙에'[100]를 부수는데 사용한 목제 도구이다. '세밭'이나 '묵장밭'을 개간하였을 때에 잡초의 뿌리와 얽혀있는 많은 흙덩이가 생기는데 이 흙덩이를 부술 때는 '도치'[101]를 사용하였다.

覆種具로는 소나무 등 가지 많은 나무로 엮고, 그 위에 무거운 돌 등을 올려 놓아 사람이나 소로 끌어 播種된 씨앗을 覆土하였던 도구로 선비가 있었다. 이는 타도의 鍵과 類似하였다. 조(粟)와 陸稻의 鎭壓作業에 牛馬가 없거나 부족하였을 때는 '남태'(사진 3)[102]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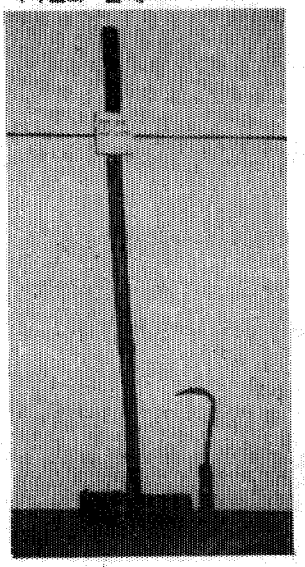
除草 도구로는 '골갱이'[103]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長柄鋤만이 존재하였다. 그 형태는 작지왓에서 사용하는 것과 질왓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區分된다(그림 19참조). 그 이외의 주요 農具로는 제주도에 기원을 둔 한국의 **고유** 농기구인 '쇠스랑(鐵齒鍬, 사진 4)'이 있다.[104] 쇠스랑은 주로 소 우리나 돼지 우리에서 거름을 꺼내는데 사용되었으며, 흙덩이를 부수거나 耕起 작업에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갈대죽' (나무삽, 사진5)과 밭의 돌을 치우는데 사용한 '돌 산태'[105] (사진 6), 흙이나 거름을 담아 나르는데 사용한 '골체'[106] 등이 있었다.

3) 收穫 및 脫穀作業의 농구

모든 농작물의 수확에는 '낫'[107]을 사용하였으며, 탈곡 도구는 작물과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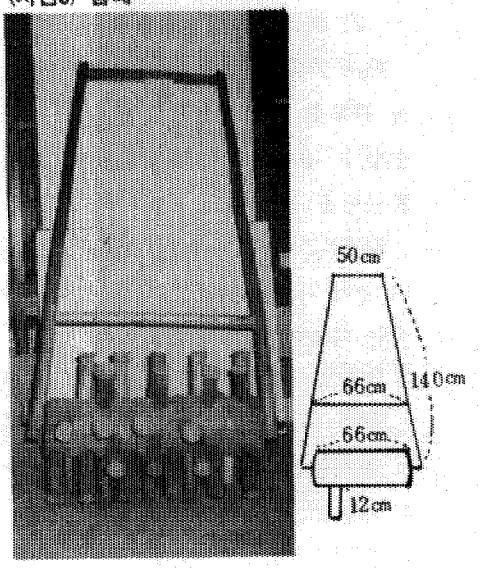
100) 흙덩이.
101) 도끼.
102) 輪木. 통나무에 말발굽처럼 구멍을 낸후 구멍에는 주먹크기의 나무를 재단하여 맞춤으로서 말이 끄는 것과 흡사한 효과를 기대하였다.
103) 호미.
104) 李鎬徹, 前揭書, p. 335.
105) 삼태기의 일종으로 '줄 산태'라고도 한다. 주변 손잡이는 누룩나무로 내부는 陸稻의 짚으로 만들었다.
106) 삼태기.
107) 본도에서는 호미라 부름

〈사진2〉 곰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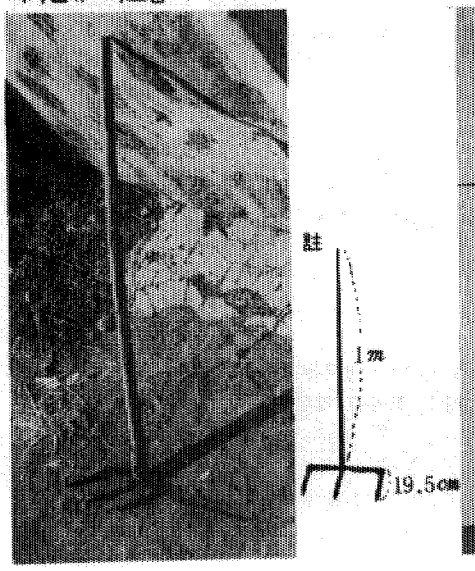


註) 호미의 길이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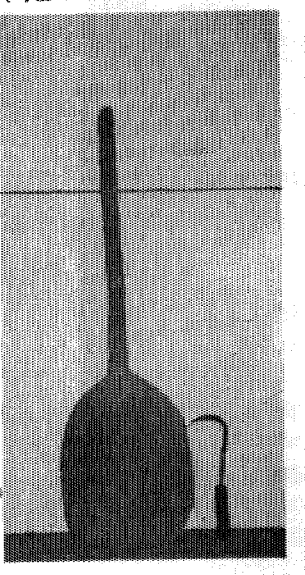
〈사진3〉 남태




〈사진4〉 쇠스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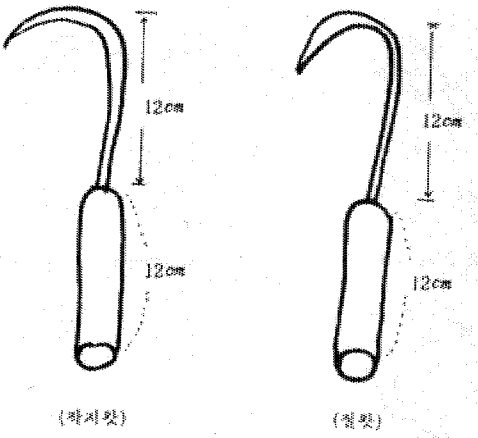

〈사진5〉 나무삽



註) 호미의 길이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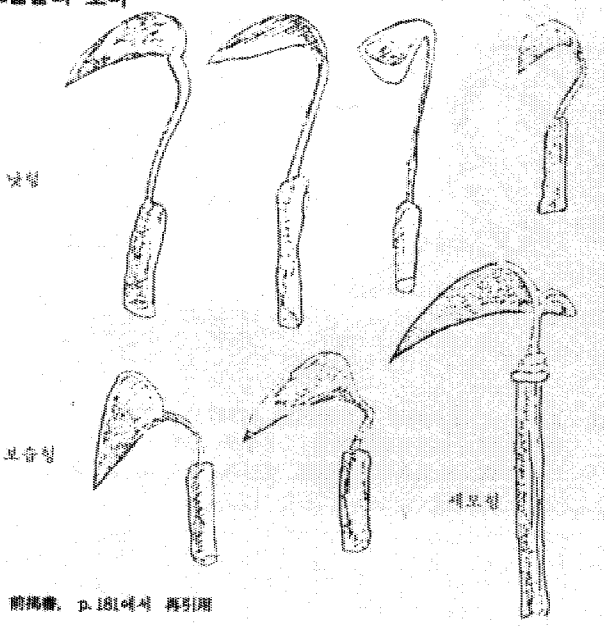
〈그림 19〉 호미

1. 본도의 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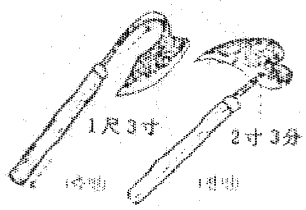

(하시앗) (정앗)

2. 타도의 오늘날의 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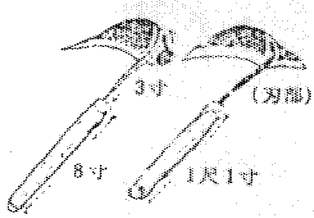



資料 : 李鎭淳, 前揭書, p.181에서 再引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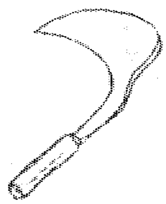
### 3. 1900년경의 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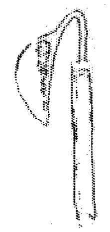

a. 江原道 淮陽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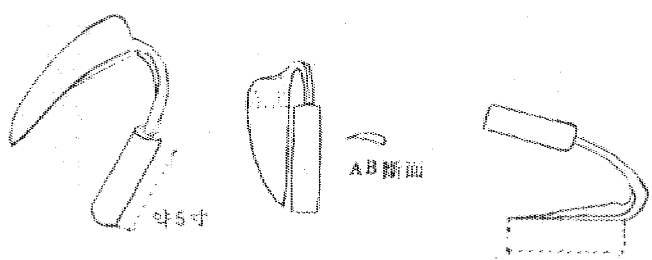

b. 咸鏡南道 安邊郡 南山驛



c. 滿浦 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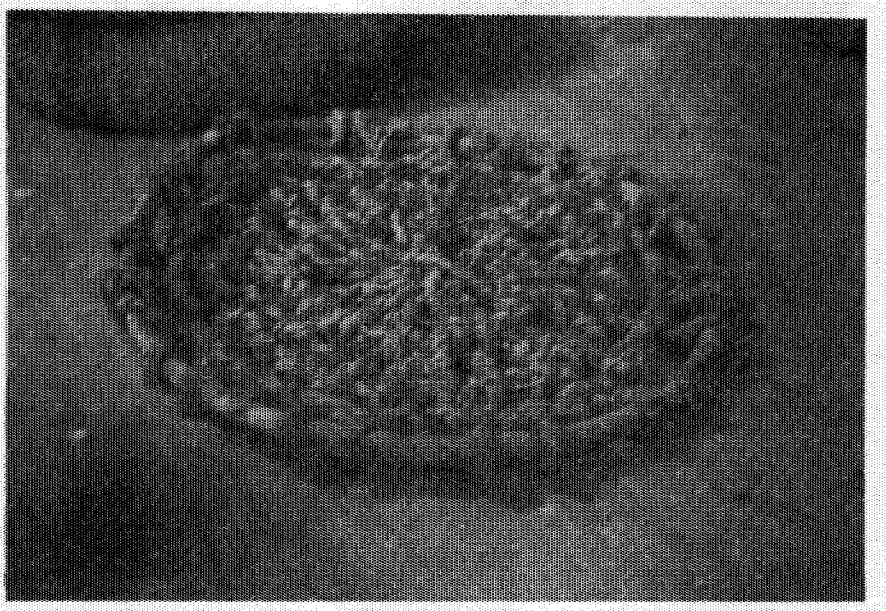
d. 京畿道 長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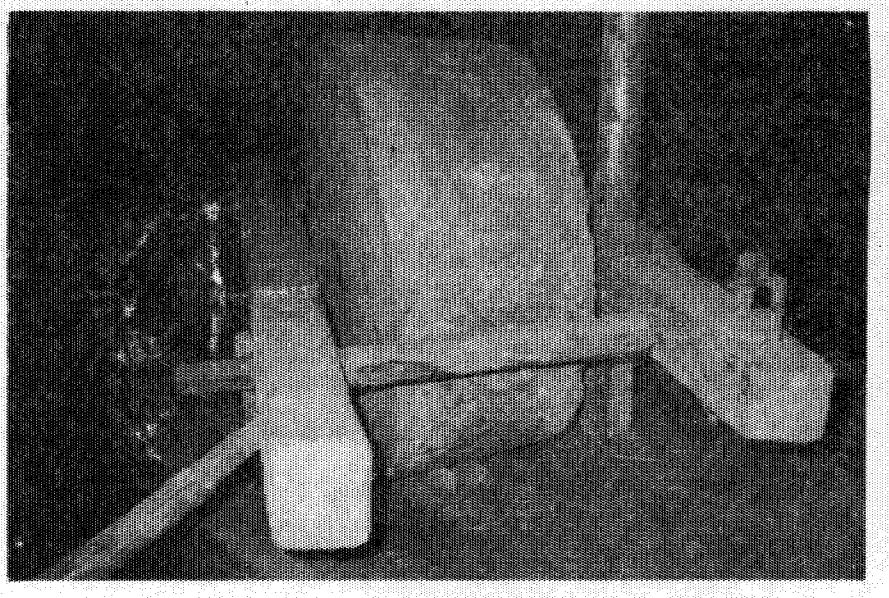

e. 기타 지역

자료 : a. b. c. 德永勳美. 『韓國總覽』(1907), p.621
b. 「韓國土地農產調査報告」(경상도, 전라도).
c. 「韓國土地農產調査報告」(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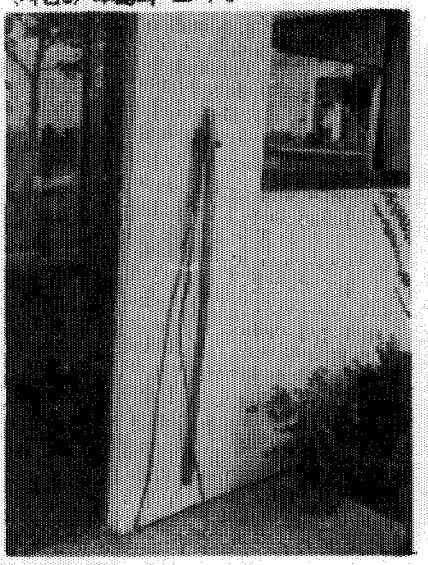
〈사진6〉 돌산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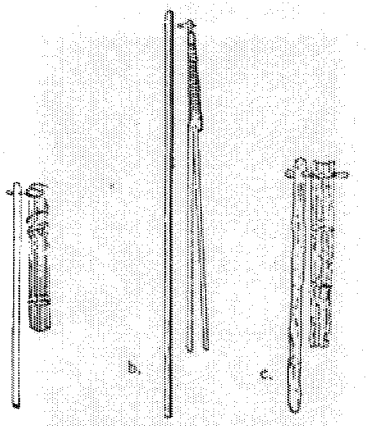
〈사진7〉 연자마



〈사진8〉 本島의 도리깨



〈그림20〉 連枷 耕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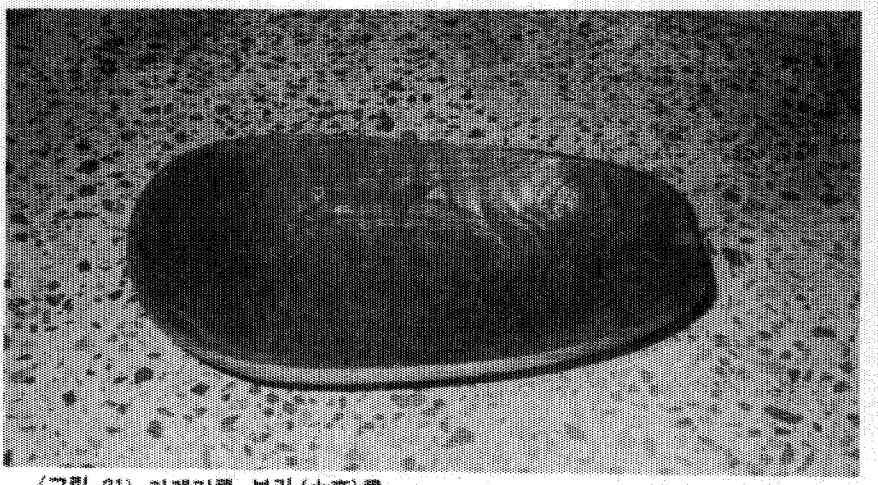

자료 : a. 「農政全書」 22. 農器圖譜 2.
b. 「海東農書」 2. 農器
c. 「林園經濟志」 1. 本利志 11. 農器圖譜 下.

資料 : 李鎬澈, 前揭書, p.349에서 再引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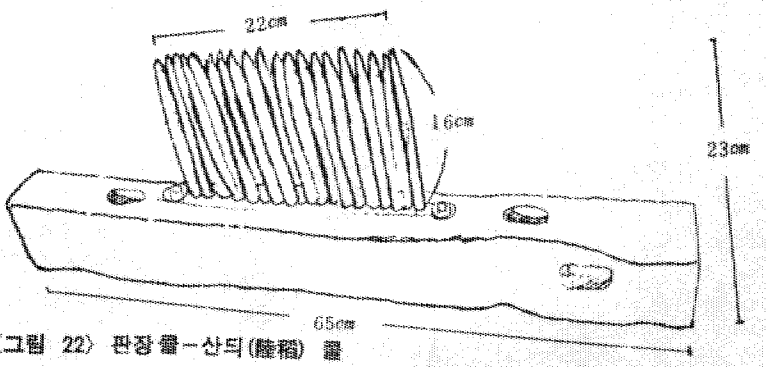
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작물에 사용된 도구로서 가장 많이 쓰던 도구는 '도리깨'(사진 8)였다. '도리깨'를 '도개'라고도 하였으며, 그 형태는 「海東農書」에 실린 連枷(그림 20)와 타작 나무가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점이 유사하다. 본도의 '도리깨'는 자룩의 아래쪽이 얇고, 윗 쪽이 뭉툭하게, 즉 두껍게 만들어져 힘이 윗 쪽으로 집중되도록 만들어 졌으며, 자룩과 타작 나무가 직접 연결되도록 연결 고리가 만들어 졌다. 그 외에 탈곡 도구로는 연자마(사진 7)와 마께[108]가 있었으며, 본도에서 1930年頃 부터 사용되었다는 農具로서 大麥이나 陸稻의 이삭을 분리하는 '롤'이 있었다. 롤은 보리의 이삭을 분리하는 '가레기 롤'(그림 21)과 陸稻이삭을 분리하는 '판장 롤'(그림 22) 두 종류가 있었다. 판장롤은 납작한 쇠(鐵)로 만들고 날(刀) 사이가 넓었으며, 가레기 롤은 둥근 쇠(鐵)로 만들고 날(刀)사이가 좁았다. 참깨의 탈곡은 참깨를 베어내어 말며, 깍지(莢)가 열리면 조그마한 막대기로 알맹이를 떨어 뜨린다.

108) 방망이. 빨래에 사용하는 것을 '서답막게'라고 하며, 藁工品을 만들때 사용하는 것을 '멍드렁막게'라고 한다. 이것을 탈곡에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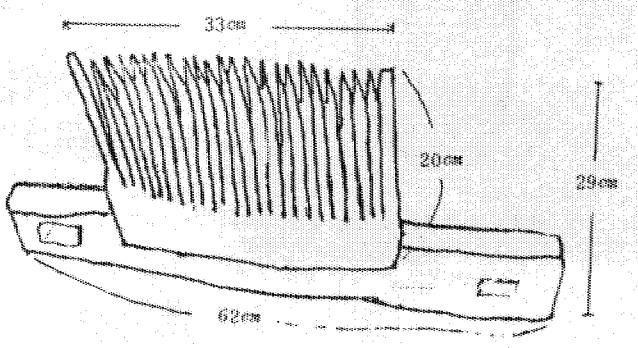
〈사진9〉 솔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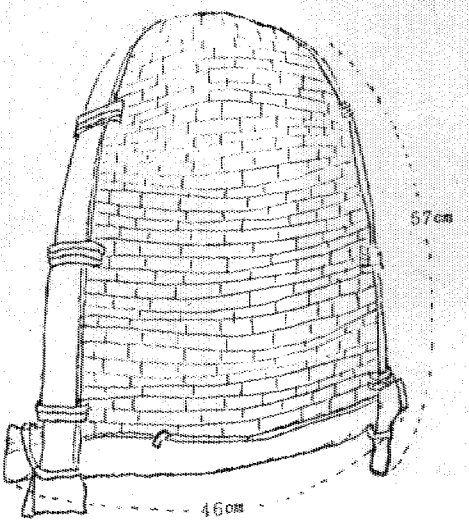
〈그림 21〉 가래기를 보리(大麥)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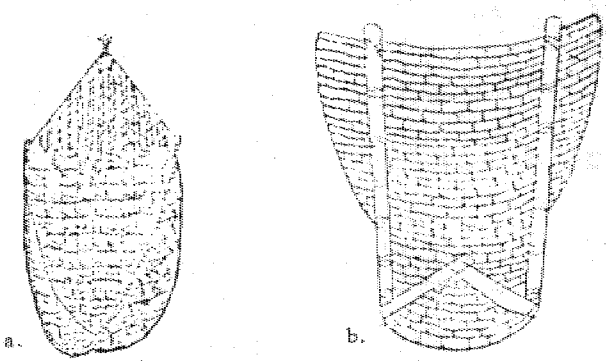

〈그림 22〉 판장 틀-산듸(陸稻) 틀



〈그림 23〉 푸는 체(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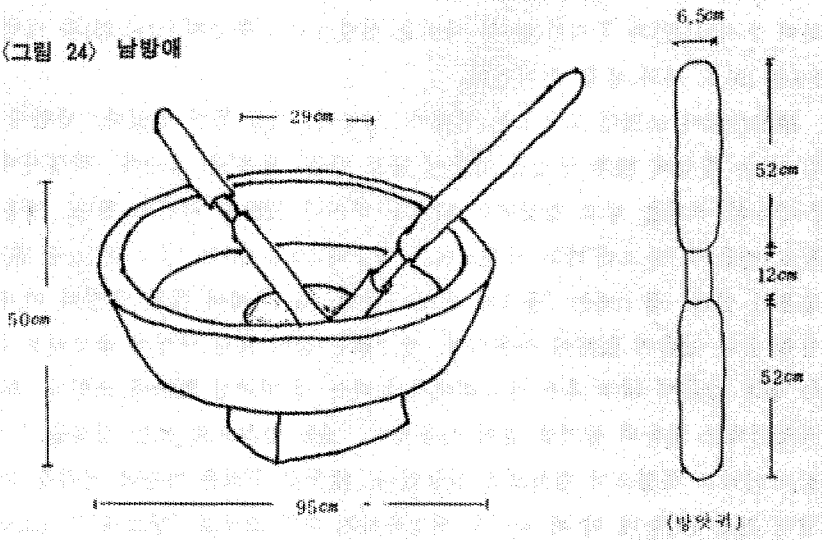



타도의 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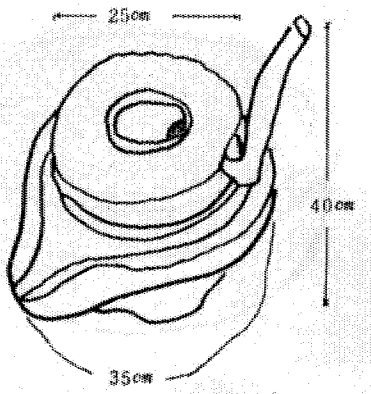



자료 : a. 『農政全書』, 24. 農器圖譜
b. 『海東農書』, 2. 農器
주 : 『海東農書』에서는 箕를 '키'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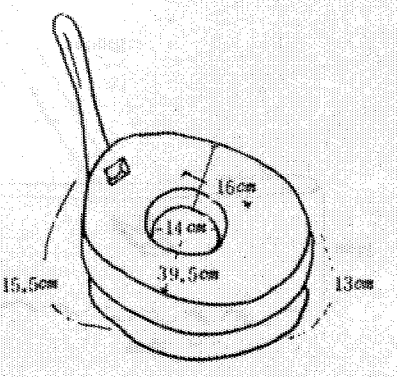
〈그림 24〉 남방애




〈그림 25〉 풀구레(맷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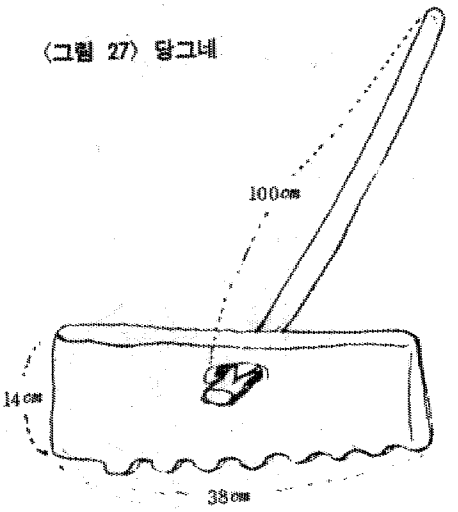

〈그림 26〉 쌀구레(맷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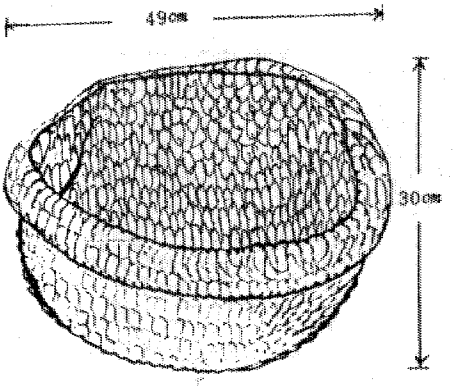
脫穀되거나 精米된 곡식은 멍석을 깔아 '솔박'(사진 9)으로 바람에 불림질하여 ᄀᆞ시락(芒)과 쭉젱이(秕)와 곡식을 선별하고, '푸는체'(그림 23)와 얼멩이(사진 10)로 겨와 체를 분리한다.

精米作業에 쓰였던 도구로는 연자마, 남방애, 맷돌 등이 있었다. 남방애(그림 24)는 중앙에 精米 구멍을 만들어 돌로 만든 '돌확'을 넣는다. 작업시에는 2~3斗의 곡식을 넣고 방앗귀로 精米를 하거나 製粉을 하기도 한다. 맷돌은 돌로 만들어 '돌고레'라고 하였으며, '물ᄀᆞ레'(그림 25)와 '솔ᄀᆞ레'(그림 26)두 종류가 있다. 물ᄀᆞ레는 '물ᄀᆞ레'라고도 하며, 돌 자체에 뚫린 구멍이 미세한 돌을 골라 만들어 製粉에 사용되며, 솔ᄀᆞ레는 돌에 뚫린 구멍이 물ᄀᆞ레보다는 큰 돌로 만들며 精米 혹은 물ᄀᆞ레에서 보다는 덜 미세한 製粉에 쓰인다. 精米 작업시에는 밑돌의 돌기를 높여 사용한다. 맷돌 받침으로 쓰는 멍석을 'ᄀᆞ레 방석'이라고 하였으며 원형으로 만들었다. 精米된 곡식은 마당에 멍석을 펴고 널어 건조시키는데 이 때 곡식을 뒤집음하기 위한 도구로 '당그네'[109] (그림 27)가 사용되었다.

(그림 27) 당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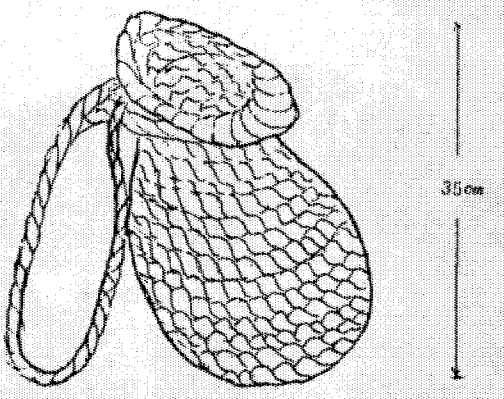



(그림 28) 망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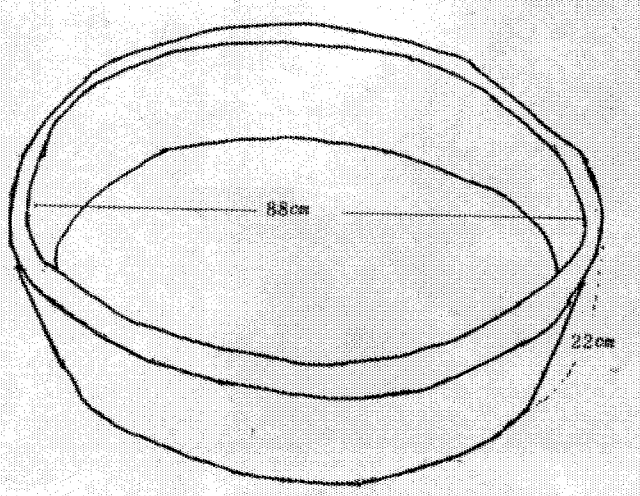



109) '고무레'라고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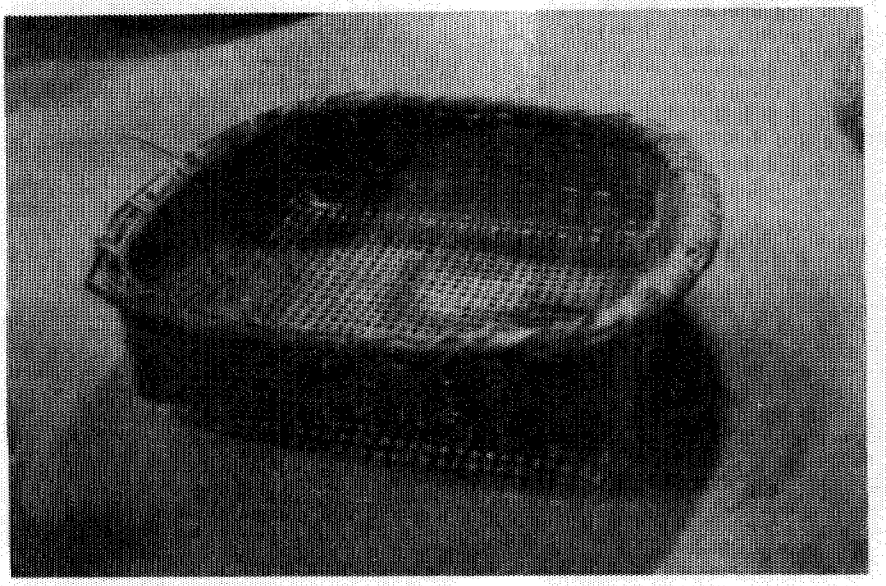
〈그림 29〉 씨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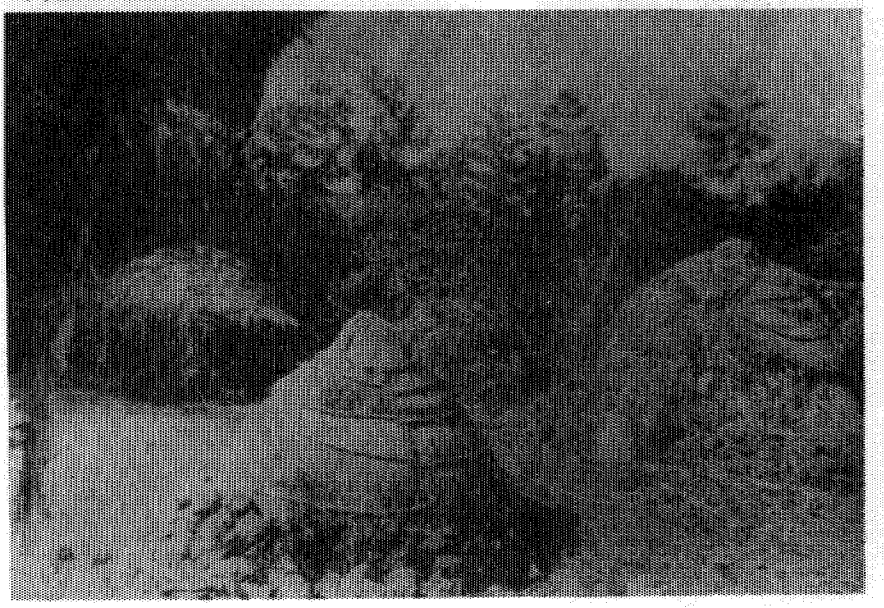

〈그림 30〉 두구리



〈사진10〉 대 얼멩이



〈사진11〉 주젱이



4) 기타 農具

운반구와 곡식을 보관하는 도구로 陸稻의 짚으로 만든 '맥'[110]이 있다. 거름을 운반하는 '거름맥'[111], 곡식을 보관하는 '착맥', 곡식을 운반하는 '망탱이'(그림 28)등이 있으며, 운반시에는 맥에 물건을 넣고 소를 이용한다.

씨앗을 보관하는 용구로 '씨뿌개'(그림 29)와 나무로 만든 상자인 '두지'가 있었다. 'ᄃᆞᄀᆞ리'(그림 30)는 製粉과 가루 반죽에 쓰였다.

보리를 수확하여 집으로 옮겨 마당의 모퉁이에 쌓아 두는 것을 '눌 눈다'라고 한다. 이때 보릿단이 비에 맞지 않도록 주변을 '노람쥐'로 덮고, 가운데의 빈 공간을 '주쟁이'(사진 11)로 덮는다. 노람쥐는 苫(점)을 의미하며, 주쟁이는 苫簟과 類似한 것으로 주로 새(띠)를 원료로 만들었다.

## 2. 農業經營 形態와 規模

가. 地帶別 農業經營

「李鎬澈」[112]은 이 시대의 작물 재배 범위의 분포와 水田 및 旱田 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시대의 농업경제에 관한 주요 경제 지표를 기초로 판별 분석하여, 전국의 농업지대를 山間 農業地帶, 旱田農業 地帶, 旱·水田農業地帶, 水·旱田農業地帶, 島嶼農業地帶로 區分하고 있다.

이 農業地帶區分에서 도서농업지대는 자료의 제약 때문에 濟州農業地域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그 特性으로 경제적 내용은 ① 戶數 전국의 3.5%, 口數 2.5%, 墾田 결수는 0.5%에 불과함, ② 水田 비율은 1.2%, 旱田 비율은 98.9%였음. ③ 戶當 口數는 2.6口였고, 戶當 墾田結數는 1.3結, 口當 墾田結數는 0.5結이라고 하고, 이로 인해 半農半漁 地域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재배 작물은 山稻, 稷, 大麥, 蕎麥 등이 중심이었고, 大豆, 小豆, 粟 등도 재배되었음이라고 서술하면서 이 중에서 특히 山稻는 산간농업지대중의 태백산 농

110) '맥다리', '망탱이', '맹탱이'라고도 함.
111) '거름착'이라고도 함.
112) 李鎬澈, 前揭書. pp. 571~639.

업지역의 1군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 지역에서 재배되었으므로 이 지역 대표적 작물로 보인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작물들은 모두가 주로 산간농업지대에서 재배되는 작물이었다는 점에서 이 제주농업지역이 산간농업지대와 유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하고 이러한 사정은 이 농업 지역의 水田 비율이 산간농업지대보다 더욱 낮았음에서도 한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주장하고 있다.

濟州道는 〈표8〉에서와 같이 1913년 以後의 통계를 기준으로 추정하여 전통사회에서도 水田 비율이 1% 내외로 旱田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지역이었음을 추정함은 무리가 없는 듯 하다. 그러나 戶當 耕地面積은 〈표8〉에서와 같이 1.1ha내외로 전국 평균 수준보다 조금 적은 편이고, 山稻가 태백산 지역의 1군현을 제외하고 모두가 제주에서 재배 되었다고 하여 대표적 작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제주의 기후와 토양 등 자연 환경의 속성상 陸稻는 극히 불안정한 작물이었다. 他地域보다는 많이 재배되었다고는 하나 주곡으로서의 의미보다

〈표8〉 1913년, 1936년, 1938년의 耕地面積 比較　　단위 : ha

| 구분 / 연도 | 농가호수 | 경지면적 | | | | | | | | 호당경지면적 | 휴한지를제외한호당경지면적 |
|---|---|---|---|---|---|---|---|---|---|---|---|
| | | 답(畓) | | 전(田) | | | | 총계 | | | |
| | | 면적 | % | 경작지 | 휴한지 | 계 | % | 면적 | % | | |
| 1913 | 37,621 | 357 | 0.7 | 40,051 | 9,111.7 | 49,162.7 | 99.3 | 49,519.7 | 100 | 1.3 | 1.1 |
| 1936 | 42,305 | 892.3 | 1 (1.4) | 62,779.7 | 30,309.4 | 93,089.1 | 99 (98.6) | 93,981.4 | 100 | 2.2 | 1.5 |
| 1938 | 42,315 | 983 | 1.1 (1.5) | 65,595.3 | 25,403.4 | 90,998.7 | 98.9 (98.5) | 91,981.7 | 100 | 2.2 | 1.6 |

註 : 1) 1936, 1938년의 경지 면적은 前後의 資料로 비교할 때 지나치게 넓게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념상 이야기되는 5만ha 수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2) ( )는 휴한지를 제외한 총경지 면적에 대한 비율

資料) 濟州郡勢一斑 〈全羅南道 濟州郡廳, 大正3(1914)年刊〉, 濟州島勢要覽 〈濟州島廳 昭和12(1937)年.

제례를 중시하는 전통사회에서 경조사 등의 행사시 반드시 필요한 특별 식량으로서의 의미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水稻 재배가 불가능한 자연 환경과 他作物과 쌀(稻)과의 교환 불가능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각 농가마다 조금씩 재배한데서 온 결과이고, 主 作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작부체계 및 시비체계가 大麥중심이었다는데서, 또는 1913년을 기준으로한 〈표9〉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大麥과 조(粟)였음이 거의 확실하며, 그 외에 大豆, 小豆, 蕎麥, 陸稻 등이 재배되었다.

〈표 9〉 1913년 作物別 栽培 面積 比較

단위 : ha

| 구분 / 순위 | 作 物 | 재 배 면 적 | 총경지(49,519)에 대한 비율 (%) |
|---|---|---|---|
| 1 | 大 麥 | 18,150.4 | 36.7 |
| 2 | 粟 | 15,259.5 | 30.8 |
| 3 | 蕎 麥 | 2,387.7 | 4.8 |
| 4 | 小 麥 | 2,328.2 | 4.7 |
| 5 | 陸 稻 | 1,914.0 | 3.9 |
| 6 | 大 豆 | 1,654.9 | 3.3 |
| 7 | 裸 麥 | 1,067.9 | 2.2 |
| 8 | 稷 | 1,040.0 | 2.1 |

資料) 濟州郡勢一斑 〈全羅南道 濟州郡廳, 大正3(1914)年刊〉

또한 「李鎬澈」은 호당 경지 면적이 劣惡하여 부족한 식량의 보충 방법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半農 半漁 地域으로 보고 있으나, 어업 천시의 풍조로 인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해안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생활하여 왔으며[113],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극히 희소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913년의 통계

113) 이러한 사실은 현재 해안가에 위치하여 있는 애월리가 과거에 해안에서 약 1 ㎞의 거리에 있는 '숙구미'에 위치하여 있다가 약 100여년전 현재의 위치로 옮겨오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는 전설이 있으며, 또한 실제 '숙구미'라고 부르는 곳이 경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어 마을이 형

인 〈표10〉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통계에서 여성이 8.0%를 차지하고 있음은 잠업 위주의 어업이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전통사회의 濟州人의 생활 중심지는 해안지역이 아닌 바다와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둔 지역 이었으며, 農業을 主業으로 하였음이 확실시된다. 그러면 일부의 해안지대의 주민을 제외한 濟州人들은 부족한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前述한 바와 같이 標高 200m 以上의 未開墾地를 개간하여 '새밭농사', '목장밭 농사', '친밭 농사'를 통하여 해결하려 하였다. 〈표9〉에서의 1936년과 1938년의 경지 면적이 9만ha 以上으로 기록된 것은 이러한 농경이 포착되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고 추측된다. 또한 標高 200m 以上의 地帶에 지금은 未開墾地로서 방치되어 있거나 방목지로 쓰이고 있는 곳이지만 '재길의 밭', '정덕의 밭', '석송의 밭'등 과거나 현재의 土地主와 관계없는 이름들이 붙여져 있음은 과거에 농사지었던 사람들의 이름일 것이라고 주민들이 말하고 있음도 이를 반증하여 주고 있다.

〈표 10〉 1913년 총인구에 대한 수산업 종사 비율(겸업 포함)

| | 총 계 | 수 산 업 | 비 율 (%) |
|---|---|---|---|
| 戶 (호) | 48,100 | 8,752 | 18.2 |
| 男 (명) | 92,090 | 3,997 | 4.4 |
| 女 (명) | 104,684 | 8,391 | 8.0 |
| 人 口 (명) | 196,774 | 12,388 | 6.3 |

資料) 濟州郡勢一斑 〈全羅南道 濟州郡廳, 大正3(1914)年刊〉

濟州道 地域 農業을 現代的 立場에서 분석한 姜志勇[114]은 業態別 業家 分布, 主要 作物 栽培 分布 및 作物 結合 形態를 地表로 하여 "감귤 재배 농가와 감귤 재배 면적이 단연 많으며 감귤-고구마-맥류-유채의 作物 結合 形態를 보여

성되었던 흔적을 지금도 찾아볼 수 있다. 다른 마을의 경우에도 이러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필자 한 사람으로서 시간적 제약 등으로 상세한 조사는 하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114) 姜志勇, 前揭論文, p. 72.

주고 있는 서귀, 남원, 중문의 南部地帶, 채소 농가가 많고 南部地帶 다음으로 비교적 감귤 재배 농가도 많고 大豆와 과맥이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作物結合 形態로는 대두-유채-과맥의 양상을 띠고 있는 北部地帶, 유채, 고구마 재배 농가와 재배 면적이 많으며, 유채-고구마-과맥의 작물 결합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東部地帶, 特作農家가 두드러지며 맥류의 재배 면적이 많고 작물결합 형태는 맥류-유채-고구마-대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西部地帶와 해발 200~600m의 高度에 楕圓狀으로 分布되어 있고 下限의 耕作地와 上限의 森林帶와 漸移地帶를 이루고 있고 거의 牧野地帶로 이용되고 있는 中山間 地帶등 5個의 地帶로 區分"하고 있다. 즉 垂直的으로 해발 200m以下와 200~600m의 中山間地帶로 區分하고, 200m 以下를 水平的으로 구분하여 南部·北部·東部·西部地帶로 區分하였다.

「濟州道 中山間 遊林 土地 開發 活用 方向」[115]에서는 垂直的으로 區分하여 ① 標高에 따른 傾斜度 등 지형 조건, ② 토양 등 土地 資源의 잠재력 및 토지 이용 상황, ③ 植生등 기후 조건, ④ 관광지 등 資源 分布, ⑤ 人口 分布, 지역적 접근성 등 환경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경사도 5度 以下의 해안과 인접한 平坦地로서 해안 관광 자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아열대성 植生이 생장하고 있고 水資源으로는 地下水가 풍부한 標高 200m 以下의 海岸地帶, 傾斜度 5°~15°의 溶岩臺地로 온대성 활엽수와 상록수가 分布되어 있으며, 土地는 일부가 田과 開發 草地로 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未開墾地 또는 未成林의 牧野로서 대단위의 草地 造成이 가능하고, 토질은 척박하고 삼투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用水가 결핍되어 있는 標高 200~600m의 中山間地帶, 경사도 15度 以上의 지역으로서 土地는 山林 및 國立公園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垂直的 植生 分布에 의한 高山 植物이 생장하고 있는 標高 600m 以上의 山間地帶로 區分하고 있다.

姜志勇과 濟大 社會發展硏究所 硏究 資料는 垂直的 分布에 있어 標高 200m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共通點을 가지면서 姜志勇은 200m 以下를 水平

115) 제주도 정책 개발에 관한 학술 용역 최종 보고서, 《지역 발전의 방향과 과제》 제주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1985, pp. 23~24.

的으로 세분하고 濟大 社會發展硏究所 硏究 資料는 垂直的 考察에 중점을 두고 있다.

濟大 社會發展硏究所 硏究 資料에 의하면 標高 200m 以下의 지대는 경사도 5度 以下의 해안과 인접한 平坦地로서 아열대성 植生이 생장하고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이다.[116] 이 지대를 海洋條件, 즉 바다에 의존하여 생활자료를 구할 수 있는 여부를 지표로 하여 再區分하면 標高 50m를 기준으로 하여 50m 以下의 지역과 50m 以上의 지역으로 區分할 수 있다. 前者는 바다에서 채취한 海藻나 멸치 등을 肥料로 사용하거나 부족한 식량 등의 생활 자료를 바다에서 보충하는 등 전통적으로 바다에 의존한 생활을 영위하였고, 지금 현재도 바다를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반면에 後者는 바닷물을 尿와 혼합하여 시비하는 외에, 즉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는 외에 교환에 의하지 않고는 바다로 부터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었으며, 부족한 식량 등 생활 자료를 '새밭 농사', '목장밭 농사', '친밭농사'등과 축산을 통하여 보충하는 등 전통적으로 標高 200m 以上의 지대에 의존하였고, 현재도 축산 등 200m 以上의 지대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標高 200m 以上을 濟大 社會發展硏究所 硏究資料는 傾斜度 5°~15° 의 溶岩臺地로 온대성 활엽수와 상록수가 分布되어 있고, 토질은 척박하고 삼투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用水가 결핍되어 있는 200~600m지대와 경사도 15° 以上의 지역으로서 토지는 山林 및 國立公園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垂直的 植生 分布에 의한 高山植物이 생장하고 있는 600m 以上의 지대로 區分하고 있다. 여기에서 標高 600m 以上을 山林 및 한라산 國立公園으로 區分함은 제주도 전체적인 입장의 區分이고, 本 地域은 標高 1,000m 以上이 한라산 國立公園에 해당한다. 또한 이 地帶를 本 地域에 限定하여 再區分하면 標高 200~800m 지대와 800m 以上의 지대로 區分할 수 있다.

또한 標高 200~800m 地帶를 再區分하여 標高 200~400m와 400~800m 地

116) 上揭書, p. 23.

帶로 區分할 수 있다.[117] 전자는 "土深이 깊은 곳에 새(띠)가 잘 자란다"는 주민들의 주장에서와 같이 이 지대는 비교적 토질이 양호하여 새(띠)가 잘 자라는 토양이 널리 분포되어 있는 지대이다. 이 지대는 전통사회에서 새(띠)밭을 개간하여 3~4년 동안 식량작물을 재배한다. 식량작물 재배 후에 3~4년 동안 좌골(차풀)을 재배하거나 10여년 동안 새(띠)를 채취한 다음 再開墾하여 식량작물을 재차 재배하는 방식에 의한 농경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後者는 雜草와 灌木 등이 널려 있어 放牧地로 이용되는 지대이다. 이 지대는 개간하여 3~4년 동안 작물을 재배한 다음 방치되었다. 이와 같이 200~800m 地帶는 토질의 차이, 새(띠) 혹은 雜草 등의 植生의 차이 등으로 재구분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도 상당 기간 방치되었다가 누군가에 의하여 재 개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後者도 前者의 3~10년보다는 휴경 기간이 長期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재 개간되었으며, 개간 방법과 작물 재배법, 그리고 재배 작물이 동일하였다는 점 등 전반적으로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대였다.

標高 800m 以上의 地帶는 喬木이 자라는 山林地域으로 전통사회에서는 '겨울에 좋은 날씨를 골라 산림에 가서 나무 사이를 건너 다니며 나뭇가지를 쳐낸다. 봄이 되면 이 나뭇가지를 붙태워 농사를 지었다'는 주민의 이야기에서와 같이 나뭇가지를 태운 灰를 시비하고, 따비와 호미 등 人力農具만을 이용하여 농경을 하였던 지역이다.

결론적으로 본 지역의 농업 지대는 標高 200m 以下의 지대를 50m 이하의 해안농업지대와 50m이상의 중간농업지대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0m 이상의 지대를 200~800m의 중산간농업지대와 800m이상의 산간농업지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定着農耕地帶로 大麥, 조(粟), 大豆, 小豆, 棉花등이 주요 재배 작물이었으며 경사도 5度 이하의 平坦地로서 대부분의 토지가 경작지로

117) '원동(標高 400~420m), 공초전(620~630m), 솔또(550~600m)에서는 한번 개간하고 나면 다시 개간하지 않는다', "마시리나 피는 원위에서나 재배하였다" 등 원동은 주민들에 의해 농경 지대 구분의 주요한 지표가 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표고 400m를 기준으로 區分하였다.

이용되었다. 반면에 후자는 移動農耕地帶로 메밀, 산듸(陸稻), 조(粟), 피(稷), 팥(大豆) 등이 주요 재배 작물이었으며, 경사도 5度 以上의 지역으로 토질이 척박한 未開墾地를 개간하여 작물을 재배하였다〈표 11참조〉.

〈표 11〉 農業地帶 區分

| 區分 / 地帶 | 農業地帶 | 主要栽培作物 | 特徵 | 調査地域의 해당 村落 | 비고 |
|---|---|---|---|---|---|
| 定着農耕地帶(標高 200m以下) | 海岸農業地帶 | 大麥, 粟 大小豆, 棉花 | ○零細 小農에 의한 集約 農耕－人力農具, 集中的 施肥, 施肥를 전제한 土地借用<br>○勞動交換－수눌음<br>○海洋에 依存 | 애월, 곽지, 금성, 고내, 신엄, 중엄, 구엄, 귀일, 동귀리 | |
| | 中間農業地帶 | 大麥, 粟 大小豆, 棉花 | ○富農, 小農, 無田民의 계층형성<br>○準粗放的 農耕－二年二作式 農耕, 根圈施肥法<br>○富農과 無田民間의 상노동<br>○小農은 中山間, 無田民은 山間에 依存 | 봉성, 어음1,2리, 납읍, 상가, 하가, 용흥상귀, 수산, 소길, 장전, 고성, 광령1,2,3리 | 감, 대(竹)가 많이 생산되었음 |
| 移動農耕地帶(標高 200m以上) | 中山間農業地帶 | 蕎麥, 陸稻, 粟, 稷, 小豆 | ○粗放的 農耕－一年一作式 作付體系, 長期休耕方式<br>○放牧地<br>○띠 및 사료작물 공급지 | 금덕리, 공초전, 원동화전부락, 양잠단지 | |
| | 山間農業地帶 | 蕎麥, 粟 稷, 小豆 | ○極 粗放的 農耕－一年一作式 作付體系<br>○山林地域<br>○땔감 공급지 | | |

나. 農業經營 形態와 規模

本 地域에 있어서의 농업경영은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小規模의 토지를 소유하고 가족 및 교환노동을 중심으로 경작하는, 생산과 소비가 일체를 이룬 小農經營과 일반 농민층 중에서 넓은 토지를 스스로 경영한 부유한 民戶에 의

한 富農經營, 그리고 無田民에 의한 삯노동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안농업지대는 小農經營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중간농업지대에는 富農, 小農, 無田民이 공존하고 있었다.

1) 海岸農業地帶

해안농업지대의 주민들의 "보리 한섬이면 굶지 않고 두섬이면 반찬차려 먹었다"는 이야기는 보리 1섬(石)을 생산하기 힘들었던 열악한 小農의 상황을 단적으로 말하여 주고 있다.[118] 또한 "100바리 수확하면 최고 부자였다"라고 하고 있다.[119] 이는 약 30섬(石)으로 100평當 평균 수확량 10斗를 기준으로 할 때 약 5千坪이 된다. 즉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農家도 5千坪을 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평균적으로 1,500평 정도는 되겠지만, 1,000평 미만의 소유자가 더 많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열악한 小農의 규모를 엿볼 수 있게 하여 주고 있다.

해안농업지대에서는 二年三作式 체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地力의 소모를 극복하기 위해 集約的 시비법을 사용하였다. 大麥을 播種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비료를 비교하여 늦거름과 보리 種子를 섞어 찐거름으로 파종할 예정지, 海藻나 멸치를 시비할 예정지, 尿와 바닷물의 혼합비료를 追肥할 예정지로 區分하였고, 중간농업지대에서 넓은 농경지에 최소한의 肥料를 根圈에만 주는 시비에 비하여 해안농업지대에서는 전 농경지를 대상으로 시비하고 있다. 이는 해안농업지대에 비료 생산이 많았다기보다는

118)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과거에는 평균 1인 식량 소비량의 월 精穀 3斗정도였다고 한다. 성인남자를 기준으로 할때 평균 1식 2홉, 1일6홉, 1개월 180홉이 되어, 즉 4.5斗가 된다. 3斗란 한 가족 단위로 식량 소비량을 재시한 것이다. 1개월 식량 소비량을 3斗로 할 때 3斗×12개월=36斗, 즉 2.4섬이 필요하다. 2년3작식의 작부체계인 '보리→조→보리→휴한'으로 계산한다면, 100평當 1섬(주민들이 제시한 최고 생산량)씩 계산하여 보리 2섬, 조1섬, 즉 2년 동안 3섬을 생산하게 된다. 이를 정곡으로 만들면 1.5섬이 된다. 즉 1년 11.3斗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2.4섬을 얻기 위하여는, 즉 36斗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300평(11.3×3=33.9斗)이 있어야 한다.

119) 3바리=1섬(石).

상대적으로 토지 소유가 열등하였으며[120], 지력의 유지를 도모하였던 施肥法으로 보인다.

토지 借用에 의한 경작에 있어서도 병작의 형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시비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借用의 예를 볼 수 있을 뿐이다. 그 사례로서 참외를 재배하기 위하여는 播種時에 灰와 돗거름 등의 충분한 施肥와 尿에 의한 集中的인 追肥가 요구되었다.[121] 따라서 참외를 재배하였던 田은 休閑과 類似한 지력 회복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댓가없이 借用할 수 있었으며, 배추에 있어서도 集中的인 尿의 시비가 필요한 작물이었기에 休閑하는 대신 무료로 대여되었다.[122]

農具體系에 있어서는 耕犂나 운반작업에 畜力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人力農具가 주로 사용되었다. 大麥 播種時 짠거름을 제조하는 데 쇠스랑과 발(足), 2차 播種 後 覆土作業에 호미와 발(足) 등이 사용되었다. 조(粟)의 播種時 鎭壓作業과 覆土作業에 축력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남태와 선비 등 人力農具를 사용하였다. 除草에 있어서도 畜力에 의한 中耕除草의 예는 찾아볼 수 없고 人力農具인 호미만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牛耕이 불가능한 田의 모퉁이나 협소한 耕地를 耕起하기 위한 따비, 쇠스랑, 흙덩이를 부수는 곰배, 파종을 위한 골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던 괭이, 尿의 施肥를 위해 尿의 운반에 사용하였던 허벅, 尿의 施肥에 사용된 솔박 등 耕犂를 제외한 모든 作業에 人力農具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二年三作式 作付體系, 集約的인 施肥, 人力農具體系 등은 海岸農業地帶의 農業經營 形態가 土地 生産性 위주의 勞動 集約的 小農經營임을 입증하여 주고 있으며, 또한 間作, 混作, 농가의 빈 공간을 활용한 작물의 재배 등도 劣惡한 小農經營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集約的 農法임을 말하여 주고

120) 해안지대의 돗거름 시비량이 중간지대보다 소량이었다. 肥料의 종류에서 前述.

121) "노름쟁이 늙어노난(늙어서) 오줌 허벅진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참외의 재배는 극소수였고 주로 극빈한 주민에 의해 이루어졌다. 참외를 재배하기 위하여는 서당 등에 가서 미리 尿를 빌려두어야 하였다고 한다.

122) 배추의 재배는 주로 울타리內에서 있었으나, 휴한할 田을 借用하여 마을 공동으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었다.

있었다. 그리고, 耕犂에 있어서도 일시에 넓은 토지를 耕犂하기 위한 兩牛犂의 예를 발견할 수 없음도 小農經營임을 말하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小農이 家族勞動에 근거한 營農을 함에 있어서 보충 노동력을 동원하는 노동교환의 형태도 小農經營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本島에 있어서의 노동교환 형태인 '수눌음'은 1대1의 노동교환 형식으로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하면 역시 한 사람이 그 집에 가서 하루 일을 하여 주는 형식으로 다수의 노동력을 일시에 동원할 필요가 없는 小農이었기에 나타난 형태였다. 타도에서 小農간에 이루어졌던 '품앗이'와 유사한 형태로 노동교환 측면에서의 小農經營임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안농업지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토지소유체계, 二年三作式 작부체계, 시비체계, 농구체계, 시비를 전제로한 토지대여체계, 間種法, 노동교환 형태 등에서 토지 생산성 위주의 소농법임을 알 수 있으며, 집약적 영농을 통하여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려 노력하였음에도 1인 1년 1섬을 얻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어업을 기피하는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의존하여야 하였으며, 이는 海女의 발생과 그들의 광범위한 활동 무대[123]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2) 中間農業地帶

① 農業經營의 基本 性格

中間農業地帶는 1萬여 평 이상의 넓은 토지를 소유한 부유한 民戶, 극히 일부였으나, 노비[124]의 노동력을 이용한 향리, 자급자족에 필요한 정도의 토지를

123) 金榮敦, "濟州道 海女의 出稼", 《石宙善 敎授 回甲紀念民俗學論叢》 同刊行委員會, 1971, p. 307.

124) 노비계층이 분화되어 無田民, 田少者로 바뀐 시기를 주민들은 약 100여년 전후(구한말~일제초)로 말하고 있으며, 부농이 해체됨과 더불어 일제 중엽 이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노비를 소유한 경우도 1개 마을에서 1~2가구 정도일 뿐이었으며, 중간지대의 모든 마을에 존재하였던 것도 아니었다.

소유한 小農, 극히 小規模의 토지를 소유한 田少者 및 無田民 등 계층 현상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계층현상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농업경영 형태를 낳았다.

本稿에서는 신분상의 차이 이외의 특히 농업경영에 있어 차이가 거의 없는 부유한 民戶 혹은 향리로 불리워졌던 富農, 중간 계층인 小農, 역시 신분상의 차이와 주거지의 차이[125]가 있을 뿐인 노비와 無田民, 그리고 극히 열악한 田土의 소유로 無田民과 거의 생활상의 차이가 없었던 田少者[126]를 총괄하여 無田民으로 區分 하여 考察하였다.

이러한 계층 현상을 엿볼 수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0평 가지면 쌀 빌어 먹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한 사람이 300평 정도 가지면 살 수 있었고, 1,000평 이상의 땅을 가진 사람이 반(半)도 안되었다", "100마지기 까지 가진 사람도 있었으나 전혀 땅이 없어 남의 집에가 일하여 주고 빌어 먹는 사람도 많았다", "부잣집에 가서 일하여 주다 보면 자기 일을 못하였다"는 등 일부의 부농과 다수의 無田民이 존재하였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새밭을 개간하려면 자기 소가 있어야지, 소가 없으면 개간을 못한다", "새밭 개간은 워낙 힘이 들기 때문에 소를 빌려 주지 않는다", "중류 정도는 되어야 새밭을 개간하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 못한다"등의 이야기에서는 富農과 無田民 사이의 계층, 즉 小農이 존재하였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 외에도 이와 類似한 많은 이야기들로 미루어 보아 중간지대에 있어서의 계층 현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형태는 피라미드형의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었음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

② 富農의 性格

本稿의 富農은 왕족, 양반, 사대부, 향리 등의 봉건 지배층인 농장주의 직영지를 주로 자기 경리를 가진 솔하 노비와 일부 외거 노비의 부역 노동을 기

125) 노비의 주거지는 향리의 家內였음.

126) 극히 적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畜力을 거의 소유하지 못하여 거름을 생산할 능력도 없는 계층으로, 병작, '새밭' '목장밭' 농사에도 참여하지 못하였던 계층.

반으로 집단적으로 경작하는 고전 장원적 경영 형태인 농장경영[127]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넓은 농경지에 최소한의 비료를 根圈에만 주는 시비법과 二年 一作式, 혹은 一年一作式 작부체계 등의 조방적 성격은 유사한 점이라 할 수 있으나, 노동의 주체는 가족노동이었고 無田民의 雇工은 보충 노동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노비의 존재는 극히 미미하였다. 또한 축력의 이용에 있어서 넓은 면적을 일시에 耕犂하기 위한 兩牛犂의 사용이 없고, 축력 농구의 존재나 축력에 의한 中耕除草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노동 절약적 재초농구인 長柄鋤를 사용하지 않았음은 농장경영에 비하여는 집약적 영농으로 富農에 의한 小農경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안농업지대의 작부체계에 비하여 조방적인 二年二作式의 작부체계가 주류를 이루었고, 노동의 주체를 가족노동에 두고 있으나 無田民의 雇工을 사용하여야 할 만큼의 넓은 토지와 여유가 있었으며, 人力에 바탕을 두고 사용하였던 선비를 축력 견인에 의해 사용한 예가 많고, 역시 인력농구인 남태의 존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돗거름과 尿의 시비에 있어 해안농업지대의 撒布 방법이 아닌 넓은 농경지에 최소한의 비료를 주는 根圈 시비가 대부분이었음은 조방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富農이라 함은 小農과는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富農을 의미한다.

富農의 농업경영에 있어 다수의 축력을 소유하고 있었으면서도[128] 축력농구나 축력의 이용이 저조하였다는 점은 本島 농경의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돌이 많은 본도의 토양 특성에서 오는 축력 투입의 곤란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따라서 노동 집약적 경영을 통해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富農은 장자 상속의 전통이 원인이 되어 존재하였다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말하고 있으나 그 분명한 원인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넓은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대부분이 宗孫이었다는 사실은 최근의 역사에 한정한다면 신빙성이 있다

127) 李鎬澈, 前揭書, p. 647.

128) 최고 100頭까지 소유한 富農도 존재하였으며, 축산이 小農 이상의 계층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양반 집안이라 하여 역시 넓은 토지와 노비를 거느린 생활을 한 극소수의 계층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은 지방 향리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며, 부유한 民戶와 이들은 중첩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③富農, 小農 및 無田民의 相關關係 및 相異點

富農은 "100마지기 이상을 소유하였다"라는 주민들의 주장에서 1만여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으며, 小農의 경우는 3,000여평 내외의 토지를 소유하였던 계층이며[129], 無田民 중 田少者라 할지라도 1,000평미만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축력의 소유에 있어서는 富農은 최고 100頭 이상의 牛馬를 소유하고 있었으며[130], 小農의 경우는 1~3마리, 無田民은 거의 소유하지 못한 계층이었다.

富農과 小農에 있어 노동의 주체는 가족노동과 혈연 관계자[131]의 노동에 있었으나 富農인 경우는 無田民을 고용함으로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있었다.

肥料의 생산에 있어서도 富農은 상당한 축력을 소유하고 있어 비료의 생산

129) 주민들은 3,000여평 정도의 토지소유를 중류이상의 가계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1인1년 식량 소비량을 36斗(2.4섬)로 하였을 때, 관습적으로 채택되었던 2년2작식의 전형적인 유형인 보리→조→휴한→휴한을 기준으로 할때, 100평당 최고 생산량일 때 2년에 조곡 2섬이 되며, 이는 정곡으로 1섬, 즉 1년에 0.5섬(7.5斗)이 된다. 이렇게 하여 계산하면 1인당 480평(2.4섬÷0.5섬=4.8배), 5인 가족으로 볼 때 5인×480평=2,400평의 토지 소유가 있어야 식량 자급이 가능하다. 2,400평의 토지는 최소의 한계적 토지 소유 필요량이고, 牛馬의 소유 등이 추가되었을 때 인력과 시간의 여유가 있어 '새밭 농사', '목장밭 농사'가 가능하게 된다.

130) 축산은 주로 방목에 의하여 경영되었다. '일소'을 제외하고는 조의 진압 등 농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목을 하였으며, 겨울인 경우에도 방목을 하였고, 이때 나뭇잎 등을 먹으며 생존하였다고 하며, 눈이 많이 내려 방목지에서 먹이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준비하였던 사료를 공급하였다.

131) 본도는 전통사회에서부터 핵가족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혈연 관계자들 사이의 구속력이 비교적 약하였던 편으로 혈연 관계자라 할지라도 無田民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능력도 높았으며, 또한 인력 동원이 가능하고 토지와 식량에 여유가 있어 "보리→綠肥→보리→조"의 작부체계 및 "보리→조→휴한→휴한"의 조방적 작부체계의 선택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小農은 "보리→콩→휴한→조" 및 "보리→조→휴한→콩"의 작부체계를 통하여 보리, 조 외의 大小豆 등의 식량작물을 얻기 위한 집약적 체계를 선택해야 하였고, 토지 소유가 열악한 小農은 '보리→조→보리→휴한'의 二年三作式 작부체계를 취하여 尿와 바닷물의 혼합 비료를 追肥하는 등 집약적 농경을 실시하였다. 또한 小農의 경우는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새밭', '목장밭'을 개간하여 농사를 하여야 하였다.

並作은 富農의 토지를 대여하여 小農에 의해 경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無田民의 경우는 축력과 비료의 결핍은 물론 富農에 의존하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마련할 수 없어 並作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병작은 大麥에 있어서는 비료의 소모가 많을 뿐 아니라 주곡이었기 때문에 병작 대여의 예가 거의 없었으며, 경작자 자신도 비료와 인력의 부족으로 병작을 기피하였다. 조(粟)의 경우에 있어서도 麥後作으로 혹은 休閑되었던 耕地에서 재배되었기 때문에 병작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병작은 지력의 유지와 식량의 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大豆, 小豆의 경우에 주로 이루어졌다. 병작은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1/2씩 나누어 갖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며, 半作이라고도 하였다. 小農의 경우는 '새밭 농사'보다 쉬워 병작을 원하는 편이었으며, 富農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토지를 대여하여 주었다.

3) 中山間農業地帶

中山間農業地帶의 농경은 비교적 토심이 깊고 띠가 잘 자라는 '새밭'이라고 부르는 標高 200~400m의 지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새밭 농사'와 잡초와 관목이 자라는 '목장밭'이라고 부르는 標高 400~800m사이의 지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목장밭 농사'로 區分되어질 수 있다.

개간은 토지 저항이 강하였기 때문에 힘이 세고 순한 소 2마리를 縱列로 연결하여 개간하였다. 따라서 개간을 위한 소(牛)는 借用할 수 없음으로 인해 소(牛)가 부족하였을 때에는 개간을 원하는 주민들끼리 수눌음에 의해 소(牛)

를 교환하였고, 만일 소(牛)를 借用하였을 경우는 비싼 댓가를 치러야 했다.[132]

개간 방법은 소(牛) 2마리로 6회를 耕犂를 하면 약 70㎝ 정도의 이랑이 만들어지고 이랑과 이랑 사이는 남겨 두었다가 소(牛) 1마리로 耕犂를 한다. 耕犂한 다음 흙덩이는 풀 뿌리와 얽혀 있기 때문에 도끼를 사용하여 熟治作業을 한다.

一年一作式 作付體系를 취하였던 새(띠)밭 (標高 200~400m)은 전술한 바와 같이 순환식 이동농경방식을 취하였다. 이 때 1회의 作付體系가 끝나면 좌골(차풀)을 재배하거나, '새(띠)를 들인다'고 하여 새(띠)를 채취하는 田으로 이용하였다. 좌골은 種子를 播種하였으나 새(띠)는 田을 방치하여 두면 저절로 生育하였다. 좌골은 사료작물이었으며 豆科作物로서 지력 회복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새(띠)는 중요한 생활 용품이었으며 최소한 지력을 소모하지 않는 휴한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된 작물이었다.

휴한 기간이 좌골의 경우는 3년, 새(띠)는 10년 정도 수확하고 재 개간을 한다. 그 이유를 주민들은 "좌골이나 새가 가물어 갈때 개간하면 농사가 잘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계속된 수확으로 生育이 저조하게 되는 기간이 3~10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좌골을 재배하였던 田을 재개간할 때에는 소 1마리만을 사용하여 재개간을 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비교적 돌이 없어 관리가 쉽고, 토질이 좋은 곳이 선택되었다.

목장밭(標高 400~800m)이라고 불리우는 지대는 토질이 척박하다는 이유와 함께 遠距離 등 농경에 불리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새(띠)밭에서 처럼 좌골을 재배하거나, 새(띠)의 채취가 불가능하여 장기간 방치되어 방목지로 사용되었다.

중산간농업지대는 최소 2㎞에서 최고 10㎞까지의 遠距離로 인한 운반작업, 그리고 개간에 상당한 人力과 畜力의 투입이 있었다. 특히 메밀의 재배를 위하여는 1여년 동안 灰를 모아야 하였으며, 그리고 灰를 건조시키고, 돌맹이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했다. 또한 "제사가 끝날 때쯤 하

132) 前述한 바와 같이 이 경우는 2년 정도 작물을 재배한 다음의 경작은 소(牛) 주인이 하였다.

여 소의 등에 재(灰)를 싣고 출발하면 밭에 도착할 즈음 날이 밝고, 집에 돌아오면 날이 어둡는다", "열흘은 다녀와야 메밀 농사를 해 먹는다"고 하여 移動과 운반 작업에 많은 人力과 畜力이 소모되었다. 그리고 메밀 播種 前 熟地化 作業으로서 2회의 耕耘와 熟治作業에 많은 人力이 소모되었다. 이와 같이 개간과 동시에 재배되는 작물의 재배에 많은 人力과 畜力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未開墾地를 開墾한 후의 熟地化 作業이었다. 따라서 熟地化의 作業이 종료된 이후의 陸稻, 조, 피의 재배는 勞動 節約的인 粗放 農耕을 행하였다. 즉, 陸稻, 조, 피의 파종시의 鎭壓作業, 陸稻와 조의 제초에 있어서의 극히 적은 노동투입[133], 그리고 수확을 위한 노동투입을 제외하고는 거의 노동투입이 없었다.

4) 山間農業地帶

이 지대에서의 농경이 中山間地帶와 다른 점은 山林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나뭇가지를 불태워 만든 灰만을 비료로 사용하였으며, 除草作業에 人力 투입이 全無하였고, 축력 농구의 사용이 전혀 없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中山間地帶에서의 농경에 필요한 요건이 미비된 경우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지대의 농경은 中山間지대와 마찬가지로 이동농경이었으며, 시비체계, 농구체계 등 모든 면에서 볼 때 원거리라는 불리한 여건과 더불어 극히 조방적인 농경이 이루어졌던 지대이다. 주민들은 흔히 이 지대에서 농사를 '친밭 농사'라고 불렀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標高 200m 이상의 지대에서의 농경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형태의 농경이 분해되는 과정과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이후의 농민층이 분해되는 과정과 함께 분해되는 경로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토지조사사업 이전에는 아무 곳에서나 농사지을 수 있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토지조사사업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 지대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을 가져와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농민층의 분해가

133) 개간지는 잡초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제초 작업에 많은 노동 투입이 불필요하였다.

화전민으로 전락한 예[134]와는 달리 본도에서는 이동농경의 축소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중간농업지대의 주민들의 離村하는, 그로 인하여 중간농업지대의 주민들이 급격히 감소되는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 Ⅳ. 要約 및 結論

本島는 전체 耕地面積 중에서 旱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지역으로 大麥과 조(粟)가 代表的 作物이었다.

定着農耕地帶인 海岸과 中間農業地帶의 主要作物은 大麥과 조(粟)였으며, 移動農耕地帶인 中山間과 山間은 메밀 蕎麥 , 산듸(陸稻), 조(粟), 피(稷) 등이었다.

海岸農業地帶는 대부분이 영세한 小農으로 人力農具의 사용, 集約的인 除草 및 施肥, 二年三作 혹은 一年二作의 作付體系 등 集約的 農耕地帶였다. 이 地帶에서는 가족노동의 부족함을 일반적으로 수눌음이라는 교환노동에 의해 보충하였다.

中間農業地帶는 人力農具의 사용이라는 集約的 性格과 二年二作式 作付體系, 根圈 施肥法 등 粗放的 性格이 공존하는 地帶였다. 이 地帶는 富農, 小農, 無田民간의 계층 현상이 존재하였으며, 수눌음보다는 富農과 無田民간의 삯노동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 地帶는 海岸에 비하여는 粗放的이나 中山間이나 山間에 비하여는 集約的 農耕이 이루어졌다.

海岸農業地帶의 주민들은 영세한 토지 소유로 인한 열악한 생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바다에 의존하였으며, 中間農業地帶의 영세농은 富農에 의존하거나, 中山間 혹은 山間農業地帶에 의존하였다.

中山間農業地帶의 농경은 小規模의 熟田의 소유, 畜力의 소유, 人力의 여유라는 요건의 충족에 의해 성립하였다. 이 지대에서는 未開墾地를 開墾하고 일정 기간동안 작물을 재배한 다음 경작지를 長期間 이동하였다가 되돌아 오는

134) 宮塚利雄, "日帝下의 韓國農村社會와 火田民에 關한 考察" 碩士學位論文, 慶熙大學校 大學院, 1975. p. 30.

長期休耕方式에 의하여 작물을 재배하였다. 이 지대는 이러한 長期 休耕, 극히 미약한 施肥 및 除草, 그리고 一年一作式 作付體系 등 粗放的 農耕地帶였다.

山間農業地帶는 나뭇가지를 잘라낸 다음 건조하기를 기다렸다가 불태워 만든 灰를 시비하고, 人力農具만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였던 지대로 播種과 收穫作業외에 勞動投入이 거의 없었던 粗放的 農耕地帶였다.

結論的으로 本島의 農業을 大別하여 2개의 地帶로 區分하면 海岸農業地帶와 中間農業地帶는 定着農耕地帶로, 中山間農業地帶와 山間農業地帶는 移動農耕地帶로 區分되어질 수 있다. 海岸에서 山間農業地帶로 옮겨 갈수록 粗放的 性格이 濃厚하여지며, 반면에 山間에서 海岸農業地帶로 옮겨 갈수록 集約的 性格이 濃厚한 特徵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 근거지는 海岸과 中間農業地帶에 두고 있었다. 海岸農業地帶에 생활 근거를 둔 小農은 耕地面積에 영세성과 海產物의 경제적 가치의 低劣로 인하여 生活 自給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에 中間農業地帶에 생활 근거를 둔 小農은 中山間農業地帶에 의존한 營農 및 畜產이 가능하였으며, 따라서 海岸의 小農에 비하여는 생활의 여유가 있었다. 自給社會에서는 바다보다는 中山間에 의존하는 생활이 식량 자급에 유리하였고, 이러한 환경이 중간농업지대가 전통사회에서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요인이었다.

이와 같이 中間農業地帶를 중심으로 하였던 본도의 생활권이 海岸으로 전환하게 된 원인은 日帝의 토지조사사업으로 移動農耕地帶의 경작지와 방목지와의 상실, 그리고 海產物의 경제적 가치와 향상 등에 원인이 있다고 추정되나, 次後의 課題로 하기로 한다.

또한 本稿는 涯月邑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限界에 의해 본도 전체적 입장에서 일반화되기 위하여는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본고는 사실의 발견에 초점을 둔 연구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제주 농업의 변화 원인과 속성의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Summary

# A Study on Farm Management of the Traditional Society in Cheju Island

— With an emphasis on Aewol-Up —

Nam Suck-zin

Because most of farm land in Cheju island was dry fields, Soy bean, Azuki bean, Buck wheat, Upland rice and Barnyard millet were cultivated in addition to the main crops, Barley and Italian millet.

The farm land area in Cheju Island could be vertically classified into the fixing farm land area and moving farm land area. The fixing farm land area could be classified again into the seaside agricultural area and the middle agricultural area. The moving farm land area could be classified again into th Mid-mountain agricultural area and the mountain agricultural area.

In the seaside agricultural area, most petty farmers engaged in agriculture by using human ower farm implements, the intensive method of weeding and fertilization, and the cropping system of three cropping per two year or one cropping a year. The labour exchange named "Su Nul Um" made up for the shortage of familiy labour.

In the middle agricultural area, the intensive character using human power farm implements and the extensive character of cropping system of three cropping per two year and the method of fertilization around rood existed together. There was stratum phenomena among rich farmers, small farmers and persons who had no field. There was wages-labour between rich farmers and persons who had no field.

In the Mid-mountain agricultural area. the condition of farming land was the possesion of small developed farm and domestic animals, human power margin. Crops were cultivated by long fallowing system. Farmers engaged in agriculture by using the extensive method of weeding and fertilization, long fallowing system, and the cropping system of one cropping a year.

In mountain agricultural by using farmers engaged in agriculture by using only human power farm implements and natural fertilization after burning branches away. There was few invesing-labour except seeding and havest work.

## Conclusions are as followed

1. The seaside agricultural area had a tendency to very intensive farm management.
2. The middle agricultural area had a tendency to the coexistence of intensive and extensive farm management.
3. The Mid-mountain agricultural area had a tendency to extensive farm management.
4. The mountain agricultural ared had a tendency to very extensive farm management.